[별첨] 롯데 마스터 프로젝트 공모전 '장편 영화 시나리오' 기획안

1. 작품명
HOLD
2. 기획의도
미화되지 않은 인간의 본모습 그대로를 담은 액션 느와르.
3. 로그라인 (3줄 이내로 작성)
40대 후반, 미혼인 건달 최영은 자신의 형님이자 사채업자인 동규의 명령으로 찾아간 식당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승혜를 만나게 된다. 추억에 빠지는 것도 잠시. 동규는 식당 건물을 빼앗기 위해 승혜를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고, 동규와 승혜, 두 사람 사이의 과거는 더 큰 사건을 불러오게 된다.

4. 인물 소개

송최영 : 주인공. 40대 후반 미혼 남성. 클라이밍을 취미로 하는 사채업 전문 건달.
장동규 : 송최영이 형님으로 모시는 건달 겸 사채업자.
강형두 : 형두파의 두목. 과거에 동규, 최영이 모시는 인물을 죽이고 두목이 되었다.
양승혜 : 최영의 과거 연인. 양채연의 엄마. 현재는 식당 여사장이다.
양채연 : 승혜가 최영에게 비밀로 하고 키운 둘 사이의 딸. 현재 고등학생이다.
김현수 : 송최영의 심복.
강지민 : 강형두의 딸.

5. 전체 줄거리 요약(시놉시스)

40대 후반의 싱글인 건달 송최영은 클라이밍이 취미이다. 또한, 자신의 취미를 살려서 보다 수월하게 채무자들을 쫓는 사채업 종사자이기도 하다. 최영이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장동규는 최영이 모시는 형님이자 그의 직장인 대부업체 대표이다. 동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최영에게 한 식당으로 채무 독촉을 보낸다. 그리고 최영은 그 식당에서 사장으로 있는 양승혜를 만나게 된다. 최영과 승혜는 20년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관계였지만 어느 날 승혜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현재 승혜는 동규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채무자이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최영은 쉽게 채권추심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심복인 현수의 도움으로 어렵게 소액의 돈을 받고 돌아 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승혜와 그녀의 딸 채연에게 미움을 사게 된다. 게다가, 동규의 입장에서 최영이 받아 온 돈이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기에 최영을 비난한다. 속상해진 최영은 다시 승혜를 찾아간다. 승혜의 식당에서

그녀와의 추억에 잠긴 최영은 우연히 양아치들이 승혜의 식당을 노리는 것을 알고 구해주게 된다.

며칠 뒤, 동규는 식당 건물의 소유주가 승혜임을 알고 건물을 뺏기 위해 최영에게 승혜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최영은 승혜에 대한 호감이 있어 명령을 거부하지만, 동규는 건달 시절부터 이어져온 두 사람의 인연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꿈꾸었던 조직의 재건을 목표로 내세우며 최영을 압박한다. 식당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 될 것이고 그러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상환하고도 조직을 재건할 만한 수익이 된다는 논리였다. 결국 승혜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고 동규의 명령을 따르기로 한 최영은 승혜의 딸 채연을 납치하여 형두파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팔아 넘긴다. 그리고는 승혜에게 자신이 채연을 데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결국 채연을 인질로 잡힌 승혜는 순순히 건물을 넘긴다. 이후 동규의 부하들은 사고로 위장하여 승혜를 살해한다. 미안한 마음에 승혜의 장례식장에 간 최영. 승혜의 아버지만이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고 조문을 온 최영의 정체를 의심한 아버지는 채연의 친부가 최영일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의심이 든 최영은 곧장 채연을 찾아가 머리카락을 체취한 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며칠 뒤 동규는 최영을 불러 이번엔 미국에서 유학 중인 강형두의 딸 강지민이 한국에 들어온다며 납치 후 살해할 것을 명령한다. 강형두는 13년 전 최영과 동규가 모시던 큰 형님 그리고 2인자인 대통형님을 제거하고 조직의 보스에 오른 인물로 동규와 최영은 그에게 복수하는 날을 꿈꾸고 있었다. 최영은 승혜가 죽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다음을 기약할 것을 제안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놓쳐선 안된다는 동규의 주장에 부하로서 따르게 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최영은 검사 결과 채연이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형두의 딸 지민을 처리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한 최영과 부하들은 의외로 쉽게 지민을 납치하는 데에 성공하게 된다. 지민을 처리하기 위해 찾은 창고에서 동규가 자신도 함께 제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 챈 최영은 부하들이 지민을 강간하게끔 유도하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모두 살해한다. 동규가 자신을 처리하려고 한 사실에 분노한 최영은 지민을 풀어주고 형두의 업소에서 자신의 딸 채연을 구해내기로 결심한다.

최영은 채연을 구하기 위해 현수에게 부탁을 하지만 현수는 오히려 동규의 부하들에게 뒤를 밟혀 채연을 빼앗기고 본인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뒤늦게 업소에 도착한 최영은 동규가 남겨둔 암살자와 형두가 보낸 부하들로부터 가까스로 현수를 구해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 한편, 동규는 평소와 달라진 최영의 행동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 결국 최영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지만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최영을 잡기 위해 나갔던 부하가 최영의 집에서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발견하면서 그 동안 최영이 달라진 이유를 알게 된다. 자신이 빼돌린 채연과 최영이 친부녀 관계임을 알게 된 동규는 뒤늦게 최영을 죽이려한 사실을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지민을 납치한 뒤 강형두를 유인하여 죽이려고 했던 계획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들통나 형두파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동규는 결

국 채연을 인질로 이용하여 최영에게 강형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자기자신은 안전을 위해 창고로 피신한다. 한편 동규의 협박에 의해 형두를 암살하려던 최영은 되려 본인이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형두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고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 형두는 고민 끝에 자신의 딸을 구해준 최영과 함께 동규를 제거하기로 한다.

얼마 뒤 최영이 가방에 형두의 시체를 담아 창고에 나타난다. 동규는 채연을 인질로 삼아 최영을 물러나게 한 후 13년 전 형두와의 대결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일에 대한 복수를 가방에 든 형두의 시체에게 갚는다. 그러나 실제로 가방에 든 시체는 형두가 아닌 동규가 형두 곁에 심어둔 첩자였고 놀라는 동규의 머리에 권총이 겨눠진다. 어이 없는 상황에 놀라는 동규 앞에 형두가 나타나 자신을 배신한 댓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겁박하지만 동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최영에게 식당 여사장 제거의 배후가 형두였음을 폭로한다. 분노한 최영이 형두를 죽이고, 동규는 이 틈을 이용해 형두의 총을 손에 넣는다. 이로 인해 최영은 어깨에 총상을 입게 되고, 동규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다. 동규는 차마 자신의 손으로 최영을 죽일 수 없어 부하에게 시키지만 최영은 자신의 왼손을 희생해서 부하를 죽인다. 살아남은 최영은 밖에서 부하를 기다리던 동규에게 채연을 놓아줄 것을 부탁하지만 그 후에 보복 당할 것을 두려워한 동규는 채연을 벼랑에서 밀어버린다. 최영은 가까스로 벼랑에 매달린 채연을 구하기 위해 부상 당한 몸으로 벼랑을 내려가고, 떨어지려는 채연을 붙잡지만 결국 부상으로 인해 채연은 추락한다. 둘을 내버려두고 도망친 동규를 최영이 죽지 않고 끝까지 쫓아 결국 죽이고 만다. 이후 최영은 스스로 맨몸으로 절벽에 오르다 중간에 힘이 다 빠져 떨어지면서 생을 마감한다.

6. 시나리오 (제목 : HOLD)

#1. 타이틀 시퀀스. 새벽.

어슴프레 밝아져 오는 새벽 하늘.
깎아지른 절벽이 멀리서 비춰지면 절벽 가운데 까만 점이 있다..
까만 점은 바로 사람, 그것도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오르고 있는...
등과 팔에 문신이 가득한 최영이다.
최영의 나래이션이 흘러 나온다.

최영
나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이것이 내가 택한 방식이다.

나래이션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고 있던 암벽이 부서지면서
한 손으로 간신히 절벽에 매달린 상황에 놓인다.
힘이 가득 들어간 손이 클로즈업 됐다가 화면 암전된다.
서예글씨 느낌으로 영어 'HOLD' 타이틀 나타난다.

#2. 실내 클라이밍 센터. 낮.

클라이머들로 붐비는 클라이밍 센터.
로프와 하네스를 착용한 최영이 센터에서 가장 높은 벽을 오르고 있다.
최영의 로프를 잡아주고 있는 사람은 그의 오른팔인 현수.
몇몇 사람들이 아래에서 고개를 들고 최영이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간간히 응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윽고 최영이 탑을 찍고 아래를 향해 **예스!!**하고 포효한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센터 안에 퍼진다.
최영이 벽에서 몸을 떼면 아래로 주르륵 내려온다.
가볍게 착지를 하고 로프를 제거하고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최영.
그들 사이에서 최영을 빤히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여성 클라이머가 있다.
최영과 여성의 눈이 마주친다.
최영이 여성에게 야릇한 미소를 짓는다.
둘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흐른다.

#3. 호텔 객실 안. 낮.

캐주얼한 느낌의 호텔 객실.

통창을 통해 보이는 오션뷰가 훌륭하다.
침대 위에는 최영과 여성 클라이버가 알몸으로 관계를 나누고 있다.
정상위 자세로 허리를 움직이는 최영의 건강함이 이불 너머로 느껴진다.
여성의 신음과 반응이 격렬하다.
절정의 순간 최영이 **읏!**하는 신음과 함께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
문신으로 덮힌 그의 등근육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4. 호텔 객실 안. 저녁.

시간경과.
침대 위에는 여성 클라이머가 흐트러진 이불을 안고 기절한 듯 잠들어 있다.
샤워를 마친 최영이 타월을 허리에 두르고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 말린다.
거울을 통해 잠든 여자의 모습을 보고 만족스런 미소를 짓는다.
그때 누군가 객실의 문을 똑똑 두드린다.
문 밖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현수
형님, 현숩니다. 슬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아파트 복도. 밤.

낡은 느낌의 복도식 아파트.
7층의 어느 집 현관문 앞에 현수가 서있다.
벨을 누르는 현수. 띵동, 띵동, 띵동 여러 번 눌러본다.
반응이 없자 문을 쾅쾅 두드린다.

현수
김경식씨, 계십니까?
김경식씨~

#6. 아파트 안. 밤.

현수가 문을 두드리는 집의 안쪽.
갖가지 쓰레기가 쌓여 엉망이다.
불 꺼진 거실에서 초췌한 몰골의 남자가 입을 틀어막고 쪼그려 앉아있다.
밖에서는 현수가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김경식씨~**하고 부른다.
틀어막은 손 사이로 남자의 떨리는 숨소리가 새어 나온다.

잠시 뒤 문 앞이 조용해진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현관 쪽을 살피는데, 베란다 쪽에서 벨소리가 들려온다.
남자가 **헉!**하며 깜짝 놀라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다.
여전히 들려오는 벨소리에 남자가 영문을 몰라하는데,
베란다 창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난간 사이로 최영의 얼굴이 쑥! 올라온다.
남자가 **으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려는데,
전화를 귀에 대고 있는 현수가 문 앞에 버티고 서있다.
현수가 집 안에 최영을 보고 전화를 끊자, 벨소리가 뚝 끊어진다.
남자가 둘 사이에서 안절부절 갈팡질팡한다.
최영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난간을 넘어 거실까지 들어온다.

최영
(평온) 김경식씨? 본인 맞으세요?

남자
(벌벌) 네, 네? 네...

최영
(짜증) 아니, 집에 계시면서 왜 대답을 안하세요?
문도 안열어 주시고!
(손을 내밀며)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송장금융 송최영 이사라고 합니다.

남자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공손하게 악수를 한다.
최영이 손을 꽉 쥐자 뚜둑하는 소리가 나고,
남자가 **어억!**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무릎을 꿇는다.
남자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최영.

최영
저희한테 1년 전에 오백만원 빌리셨고,
현재 이자까지 합쳐서 삼천삼백만원.
근데 이자가 6개월이나 밀리셨네요. 맞나요?

남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저 근데 저...손, 손...

최영
네?

남자
손이요...손...

최영
돈이요? 지금 주신다고요?

남자
아니요...손! 너무 아파요...손이...너무...아파...

최영
그래요 경식씨, 알겠고 돈은 어딨어요?

#7. 조직 사무실. 낮.

중소기업 느낌의 사무실.
조촐한 사무실 규모와 다르게 고풍스런 나무 책상에 고급스런 명패가 놓여 있다.
업체 이름은 송장금융. 사장의 이름은 장동규이다.
동규가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 핸드폰을 두드리고 있다.
옆자리에는 정장차림의 김양이 사무용 책상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건장한 체구의 건달 둘이 지키고 서 있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영과 현수가 들어온다.
건달들이 최영에게 깍듯이 인사를 한다.
현수 역시 동규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최영이 건들건들 거리며 사무실 가운데에 놓인 소파에 털썩 앉는다.
동규도 책상에서 일어나 소파의 상석에 앉는다.

동규
(최영을 째려보며) 너는 이 씨벌놈아. 형님한테 인사도 안하냐?

최영
(고개를 까딱하며) 저 왔어요. 별일 없었죠?

동규
맨날 보는 사이에 새삼스럽게 안부는~! 씨벌...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건달들을 가리키며) 니가 그따위니까 저 새끼들까지 나를 개호구로 아는 거 아녀. 임마! 쯧.

최영
아 또 왜 이러실까~
(동규가 입을 떼려하자 귀찮다는 듯) 아~됐고! 오늘은 어딥니까?

동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아무튼 요 싸가지 없는 새끼! 어이! 김양아.

동규가 손짓을 하자 김양이 일어나 자신의 책상에 있던 서류봉투를 동규에게 건낸다.
동규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빼꼼히 꺼내 본 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놓는다.
최영이 턱짓을 하자 현수가 테이블 위의 봉투를 챙긴다.

동규
(사무실을 밖을 가리키며) 한 세명만 델꼬가서 겁 좀 주고 일단 밀린 이자만이라도 회수해와. 그 여자 사장인디 깡다구가 엥간한가 보더라고.

최영
(질색) 아 됐어요! 둘이면 충분해요. 뭐하러 몰려다닙니까.
쪽 팔리게.

동규
쪽팔...쪽팔려? 아따 아직 팔 쪽이 남아있으세요, 송이사님?
(울컥) 야이 새끼야! 조직 몰라 조직?
너 언제까지 그러고 독고다이로 댕길래?
현수도 이제 밑에 애들 좀 부리고 그래야 안되겄냐?

최영
야 현수야, 나랑 둘이 다니기 힘드냐?

현수
아닙니다, 형님.

동규
저! 이 썩을 놈의 새끼! 야! 니가 그래불면 내가 뭐가 되냐?
영이 이 새끼가 개긴다고 너까지 그럴꺼여? 확씨!

최영
아~ 왜 엄한 애한테 그래요?
오늘 가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 몰려가던지 할게요.
그리고! 나도 이제 내일모레면 오십입니다. 형님.
(혼잣말) 아 언제까지 이 새끼 저 새끼래?

동규
(빈정대며) 오~ 그라고 나이를 쳐!자신 분이
백주대낮부터 호텔서 떡을 치십니까? 해가 질 때까정?
아주 대~단하세요. 씨발! 좆나게 부러운 새끼.

최영이 현수를 노려보자 현수가 외면한다.

동규
(김양에게) 이 새끼가 이 나이 처먹도록 결혼 안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깐.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이 껍다구봐라. 영계만 드셔서 그런지 아~주 그냥!

최영이 **에이씨!**하고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건달들이 인사를 한다.
현수가 동규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최영이 현수의 뒷통수를 딱! 때리고
뒷덜미를 잡아 끌고 나간다.

#8. 달리는 승용차 안. 낮.

정장 차림의 최영과 현수가 탄 고급 세단.
현수가 운전을 하고 최영이 뒷좌석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잠시 후 차가 멈추고, 시동을 끈 현수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낸다.

현수
(룸미러로 최영의 눈치를 보며)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최영
(귀찮다는 듯이) 아! 아니야. 임마. 너는 니 일 한거고.
(궁시렁) 아 장동규 그 인간은 왜 김양 듣는데서 그러냐 쪽팔리게...씨발!
(문을 열고 내리며) 여기냐?

#9. 승혜의 식당 안. 낮.

소박한 느낌의 백반 집.
테이블 몇몇 개가 놓여져 있고 듬성듬성 손님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딸랑하고 문소리가 나면서 최영과 현수가 들어온다.
주방에서 승혜가 손을 닦으며 나온다.
최영을 보고 살짝 놀랐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를 한다.

승혜
어서오세요. 두분이세요? 편한데 앉으세요.

승혜의 얼굴을 본 최영이 인상을 찌푸린다.
기억이 날듯 말듯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며 골똘히 승혜의 얼굴을 들여다 보는 최영.

승혜
(당황하며) 왜...왜 그러세요? 식사하러 오신거 아니세요?

최영이 승혜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현수에게 손을 내밀자 현수가 봉투를 건낸다.
최영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서류와 승혜를 번갈아 본다.

최영
양승혜? 양승혜...승혜...아! 승혜! 아~ 그래! 야! 너! 오랜만이다!

승혜
(모르는 척) 누,누...구?

최영
나야 나! 최영! 나 기억 안나? 그 왜!! 아...
(승혜 귀에 대고 속삭이며) 너 그 강남 바에서 일할 때!
우리 밖에서도 몇 번 보고 했는데.

승혜
(어색하게) 어 어어어!! 최영! 어~기억난다. 그래.
오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최영
(덩달아 어색해지며) 어? 뭐... 나야 잘 지내지. 그래.

(수줍게 웃으며) 넌 그대로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난다! 야~
너 그때 갑자기 그만둬서 사장이 너 잡아 죽인다고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승혜
그래. 오빠 어! 다 지난 일이지 뭐~ 일단 앉어.
그래 뭐로 줄까? 우리 집이 김치찌개가 맛있는데.

최영
(오버스럽게) 어~그래! 김치찌개 좋지!
(난처한듯) 근데 그... 우리가 밥을 먹으러 온게 아니고~
그... 너 우리 회사에서 돈을 좀 빌렸더라?
(서류를 뒤적거리며) 그게 얼마냐면...

승혜
(정색하며) 오빠, 아직도 이런 일 해?

최영
(주변 눈치를 살피며) 그런 일이라니?
아니~ 우리는 뭐 불법적인 그런게 아니고!
이게 그 채권추심이라고 합법적으로다가~

승혜
(최영을 밀치며)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나가. 지금 영업 중이니까 있다가 다시 와. 다시와서 그때 얘기해.

최영
아니 그 저 우리도 있다가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여기 장사도 잘 되는데 일단 이달 치 이자만이라도 주면...
나중에 다시 오던지 할게. 좋게좋게. 응?

승혜
(단호하게) 지금은 돈 없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최영
(다급하게) 아니 승혜야 여기보니까,
너가 지금 이자가 밀린게 한두달이 아니야.
나니까 지금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있는거야. 응?

승혜
(째려보며) 좋게 얘기 안하면? 뭐 어떡하게?

승혜의 정색에 분위기가 싸하게 식고 최영의 표정에 곤란함이 드러난다.
가만히 서서 눈치만 보던 현수가 건너 테이블 남자에게 시비를 건다.

현수
(손님에게) 어이 거기 뭘 쳐다봐. 뭐 구경났어?
구경났냐고 이 새끼야! 대가리 쳐박고 밥이나 드세요.
확! 뚝배기로 대가리 깨버리기 전에.
(승혜에게) 어이! 형님이 아는 척 좀 해줬다고 세게 나오시려나 본데.
손님 다 내쫓고 샷다 내리기 싫으면 돈 가져와.
더 좆 같이 굴기 전에.

승혜가 겁을 먹을 먹고 최영을 쳐다보는데 최영이 시선을 피한다.

최영
(딴청을 부리며) 현수야 살살해라.

현수
(깍듯하게) 네 형님.
(험악한 말투) 사장님 빨리 가서 돈 가져오세요.

그때 채연이 들어오며 소리친다.

채연
(당돌한 말투) 아저씨들 뭐에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아저씨들 깡패에요?

최영이 깜짝 놀라 돌아본다.

최영
(오버스럽게 반가워 하며) 어? 어어어!! 승혜 딸인가 보구나!
아냐! 아냐~ 아저씨는 엄마 옛날에 알던 친구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채연
(더 언성을 높이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밖에서 다 들었어요.
(현수에게)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욕했죠? 사과해요! 빨리 사과하라고!
현수
(흥분하며) 아 놔 이 쪼깐한 년이.

최영
(눈을 부릅뜨며) 야! 야! 애한테까지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만해.

승혜
양채연! 너 그만 안해? 너 빨리 들어가.

승혜가 다급하게 계산대에서 지폐 몇장을 꺼내 최영에게 내민다.

승혜
지금 진짜 이거 밖에 없어.
이거라도 가져가구 나머진 어떻게든 갚는다고 전해줘.
그리고 오빠는 다신 찾아오지마.

최영
(돈을 보고 실망하며) 아니 이거 뭐 얼마된다고...
다시 올지 말지는 두고봐야 아는거고 일단 오늘은 가볼게.

나가려던 최영이 멈춘다.
지폐다발에서 만원 몇장을 빼서 채연에게 내민다.

최영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자 이거 아저씨가 주는 용돈이야.
이걸로 엄마랑 맛있는거 사먹고 화 풀어.

승혜와 채연이 이건 뭔 미친놈이가 싶은 표정으로 쳐다본다.
두 사람의 정색에 뻘쭘해진 최영이 헛기침을 하더니 테이블 위에 돈을 놓고 나간다.

#10. 달리는 승용차 안. 밤.

세단. 현수 운전. 뒷좌석에 최영.
달라진 것은 어두워진 창 밖 풍경뿐이다.

최영
(창 밖을 보며) 현수야.
현수
(룸미러로 최영을 보며) 예, 형님.

최영
(담담하게) 너무 양아치처럼 굴지마라.

현수
(기 죽은 듯) 죄송합니다. 형님.

최영
그래...

창 밖을 보며 최영이 한숨을 푹 쉰다.

#11. 최영의 아파트 거실. 아침.

투룸 형 아파트.
커튼도 없는 거실에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티비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맥주, 먹다 남은 마른안주가 어지러이 널려 있고
소파 위에는 최영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자고 있다.
테이블 위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린다.
벨소리에 최영이 화들짝 깼다가 짜증을 내며 다시 눈을 감는다.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려대자 어기적어기적 테이블로 손을 뻗어 전화를 받는다.

최영
여보세요?

동규
그래, 니 여보다 이 새끼야. 씨발. 당장 튀어와. 당장!

전화가 끊어지고, 찌푸린 눈으로 핸드폰을 한번 쳐다본 뒤 다시 잠을 청한다.
다시 잠이 든 듯 잠잠하다가 갑자기 **아이씨! 잠 다 깼네!**하고 벌떡 일어난다.

#12. 동규의 사무실. 낮.

어제와 같은 사무실 풍경.
잔뜩 화가 난 동규가 소파에 앉아 시발, 시발 거리고 있다.
그 옆에서 현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머리를 박고 뻗쳐를 하고 있다.
조용한 사무실에 현수의 앓는 소리가 울린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영이 들어온다.

최영
(소파에 앉으며) 저 왔습니다.
(뒤늦게 현수를 발견하고) 야! 너 뭐해? 왜 그러고 있어?
형님! 쟤 왜 저러고 있어요?

동규
왜 저러고 있냐고? 씨벌! 내가 묻고 싶다.
(어제 승혜가 건낸 돈뭉치를 들어보이며) 쟤가 왜 나한테 이걸 주냐?
(테이블에 돈을 팽개치며) 이게 뭐냐고!!

최영
(잠시 멍했다가 퍼뜩) 아...그게~ 아! 형님! 그 기억나요?
왜~ 우리 20년 전 쯤에 강남서 대통 형님 밑에서 일할 때~

동규
아니 갑자기 무슨...
(솔깃) 대통 형님? 형님이 왜?
(놀라며) 거기서 만났어?!

최영
(당황하며)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거기서 일할 때 자주 가던 바 있자나요~

동규
(기억을 더듬으며) 아~ 거기...무슨 가든인디 꽃...아! 플라워 가든?

최영
(오버하며) 어!어! 거기! 거기!

동규

그래. 그 바가 왜?

최영
아니 어제 갔던 그 식당 사장이 거기서 일하던 승혜더라구요!
그때 형님이랑 거기 다니던 추억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 나면서~
얼마나 반갑던지~!

동규
그래서 반가워서?

최영
아니~ 그래서! 너무 막 그러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아! 그냥 겁만 주고 왔어요~
딸내미도 와서 보고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동규
어 그래...좀 그렇고?
(중얼중얼)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그래 그래...

최영
(조심스럽게) 저...형님?

동규
(버럭)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옛날에 좀 알았다고 이년 저년 다 봐주면!
(문 앞에 건달들을 가리키며) 저 새끼들 밥은 뭘로 주니? 어!? 어?!

최영
(잠시 기가 죽어있다가 되려 버럭) 아!...내가 오늘 다른 집 가서!
어제꺼까지 다 메꾸면 되잖아요!
아이참~ 형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셔?

동규
왜? 오늘 가서 고등학교 동창이면 어쩌게?
그럼 이번엔 빈손으로 오시게?

최영
아! 형님 우리 같은 중졸이면서...

동규
(폭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현수에게) 너도 나가! 이 새끼 따라 나가서 같이 뒈져버리던지 알아서 해!
꺼져! 이 병신 새끼들아! 나가! 꺼지라고!

최영과 현수가 도망치 듯 사무실을 나간다.
그 와중에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현수.

동규
(분통을 터트리며) 니미! 저런 새끼들이 식구라고 씨벌! 아우! 내가 진짜...
김양아! 나 찬물 한잔만.

#13. 달리는 승용차 안. 낮.

세단. 운전석에 현수. 뒷좌석에 최영.
이제 막 차에 탄 듯 안전벨트를 하는 현수

현수
형님. 어디로 모실까요?

최영
...머리는 괜찮냐?

현수
(씩씩하게) 괜찮습니다.

최영
어디봐봐.

앞 머리를 올리면 피멍이 든 현수의 이마가 드러난다.

최영
(분통) 아! 장동규 이 개새끼 진짜!
아직도 지가 건달인 줄 아나! 씨발, 너무하네!

현수
아닙니다. 형님. 전 괜찮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형님까지...
최영
뭐가 새끼야! 받은게 그거 뿐인데 그럼, 아예 없다 그래?

현수
...아니요.

최영
그치?...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야, 배 안고프냐?

#14. 승혜의 식당. 낮.

손님들로 붐비는 점심시간.
승혜가 바쁘게 뛰어다닌다.
식당 문이 열리고 최영과 현수가 들어온다.

승혜
어서오세...!

최영이 빤질빤질 웃으며 승혜에게 손을 흔들어 보인다.
승혜가 인상을 찌푸리며 최영에게 다가간다.

승혜
(작은소리로 힘주어) 내가 다신 오지 말랬지!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최영
(승혜의 목소리에 맞춰) 워워~ 밥 먹으러 왔어. 손님. 손님.
(두리번거리며) 야~ 자리 없는거 보니까 맛집 맞나보다야.
아~나도 상당히 배고픈데?
(빈 자리에 앉으며) 어제 김치찌개가 맛있다 그랬나?
(주방을 향해) 여기 김치찌개 2인분하고 소주 한병 주세요.

승혜가 화가 난 듯 주방으로 들어간다.
잠시 뒤 쟁반에 팔팔 끓는 김치찌개와 공깃밥 2개, 소주 한병, 소주잔 2개를 내온다.
최영의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는 승혜.

승혜
(짜증스레) 빨리 먹고 가!
다른 테이블 손님
사장님 저희가 먼저 주문했는데요?

최영
(능글맞게) 어! 어~그래요. 죄송합니다.
먼저 주문하신 분부터 드려야지. 사장님이 착각하셨나보네~
저쪽부터 드리세요. 여기 반찬이랑 물은 셀픈가?
현수야 뭐 하니?

#15. 승혜의 식당 안. 낮.

시간경과.
한산해진 식당.
승혜가 테이블을 치우며 최영을 흘깃흘깃 훔쳐본다.
최영은 취한 표정으로 혼자 소주잔에 술을 따라 여유롭게 마시고 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3개로 늘어나 있다.
식당 유리문 너머로 담배를 피고 있는 현수가 보인다.

최영
(멀리 승혜에게) 맛이 그대로다?

테이블을 닦던 승혜의 손이 뚝 멈춘다.

최영
그때 왜~ 너 우리집에서 자고 간 날.
다음 날 아침에 너 이거만 끓여 놓고 사라졌잖아.
그때 그 맛이네...먹으니까 기억난다야.

#16. 최영의 반지하 자취방. 아침.

20년 전 회상.

90년대 후반 느낌의 낙후 된 반지하 자취방.
주방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다.

젊은 시절의 최영이 꾀죄죄한 몰골로 침실에서 주방으로 나온다.
주방에는 앉은뱅이 밥상 위에 벌레가 못 들어 가게끔 커버가 씌워져있다.
응 뭐지?하는 표정을 지으며 커버를 벗기면 밥과 수저에
양은냄비 째로 놓인 김치찌개, 반찬으로는 계란후라이, 김으로 한상 차려져 있다.
양은냄비 뚜껑에는 홍보용 스티커 뒷면 노란 종이에 적힌 승혜의 메모가 붙어있다.
'맞고 다니더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

최영
(흐뭇하게 웃으며) 하~ 미친년

#17. 승혜의 식당 안. 낮.

다시 현재.
잠시 멈춰 있던 승혜가 못 들은 척 다시 테이블을 닦는다.

최영
세월이 참 빠르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니...어떻게 살았냐?

승혜
(등을 돌린 채) 다 먹었으면 그만 가.

최영이 현수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며 자신의 소주 잔에 소주를 따른다.

최영
(밖에 있는 현수에게 손짓하며) 아 아직 좀 남았어~

현수가 다급하게 담뱃불을 끄고 안으로 들어온다.

최영
(현수에게) 너 사과드려.

현수
(당황) 네?

최영
(승혜쪽으로 턱짓하며) 아 어제 그거 왜~

현수
(잠시 고민하다가 퍼뜩) 아 네!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승혜에게 90도로 몸을 숙이며)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승혜
됐어요. 괜찮아요.

최영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래. 어제는 미안하게 됐다. 여기 얼마지?

승혜
(냉랭하게) 됐어. 그냥 가.

최영
그래. 뭐 아까보니까 장사 잘 되더만. 잘 먹었다.

나가려던 최영이 멈춰서 돌아본다.

최영
근데 빚은 왜 지게 된거냐?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남편은 뭐하고?

승혜
...아버지가 편찮으셔...그만 가줘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해야돼.

승혜가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최영이 서운한 표정으로 식당에서 나간다.

#18. 승혜의 식당 앞. 낮.

최영이 식당에서 나오는 순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무리 중 한명과 어깨를 부딪힌다.
아!하며 어깨를 부딪힌 남자A가 최영을 노려보고 선다.
훑어보니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덩치 좋은 남자 4명 무리이다.
한명한명 심상치 않게 불량한 얼굴로 상당히 공격적인 느낌이다.

남자A
어이 아저씨, 잘 좀 보고 다닙시다.

현수가 나서려고 하자 최영이 제지한다.

최영
(현수에게 귓속말) 시발...식상하다. 식상해.
(건성으로) 아이고, 이거 미안하게 됐수다~!

무리들이 눈을 흘기며 식당으로 들어간다.

#19. 승혜의 식당 안. 낮.

나갔던 최영이 조용히 다시 들어와 믹스커피가 나오는 기계의 버튼을 누른다.
주방 앞에서는 남자 무리들이 승혜를 둘러싸고 얘기 중이다.

남자A
(상냥) 아줌마~ 우리가 제안한거 어떻게, 좀 생각해보셨어요?

승혜
(덤덤) 어, 그게 아무래도 우린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A
(답답) 아이참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깐 그러시네!
이 동네가 존~나 후져서 치안이 말도 못해요.
진짜 우리 같은 떡대들이 보호를 해드려야 된다니깐?
여기 보니까 술 손님들도 많더만, 주폭 몰라요 주폭?

승혜
글쎄, 여기서 장사한지가 20년이 다 되가는데 한번도 그런 적 없었어.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은 다 매너도 좋고, 아무튼 그래~

남자
(짜증) 하, 씨...우리도 지금 매너 좋게 제안 드리고 있는 거에요~ 쯧!
일단 저희가 다시 오긴 할껀데,
그 사이에 무슨 일 생겨도 후회하시면 안돼요. 아시겠죠?

승혜

응, 그래. 알았어~ 다음에 다시 얘기해.

남자
(협박조) 그래요~ 그럼 장사 잘하시고! 문단속도 잘하시고!
밤길도 조심하세요!

무리들이 나오려하자 최영이 재빨리 돌아서서 식당을 나선다.

#20. 승혜의 식당 뒷골목. 밤.

낮에 승혜의 식당에 왔던 남성 무리가 승혜의 식당 뒷문 앞에 모여있다.
무리 중 남자B가 빠루를 이용해 식당 뒷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려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들이 그를 가리고 있다.
최영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들을 향해 걸어 나온다.

최영
어이! 거기 양아치들~

남자A
(깜짝) 뭐야! 누구야!

최영
나? 배트맨이다 이 씹새들아. (턱짓을 하며) 그리고 저기는 로빈.

반대쪽에서 현수가 등장한다. 한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다.

남자C
(신이 난듯) 뭐야 지금? 한 따까리 하자는 건가 본데?

현수
(위압적으로) 야 이 앞으로 줄 맞춰서 엎어.

빠루를 든 남자B가 피식 웃더니 현수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가 빠루를 휘두른다.
현수가 빠루를 팔로 막고 방망이로 남자의 정강이를 후린다.
남자가 정강이 뼈를 잡고 껑충껑충 뛴다.

현수가 다시 한번 방망이를 휘둘러 남자의 머리통을 가격한다.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그대로 기절한다.
나머지 일행들이 눈 앞에 펼쳐진 일에 충격을 받고 멍하다.
퍼뜩 정신을 차린 남자A가 **씨발!**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최영에게 망치를 던진다.
망치가 빙빙 돌아 최영의 발 앞에 툭 떨어진다.
최영이 잉?하는 표정으로 남자A를 쳐다본다.
야이씨!하고 최영에게 덤벼드는 남자A.
최영이 남자A가 던진 잽을 이마에 정통으로 맞는다.
이어서 날아오는 훅에 맞아 고개가 돌아간다.
연속으로 왼손 어퍼가 날아오는 순간 최영이 턱을 방어하며 남자의 손을 잡아낸다.
그대로 손을 당겨 남자의 몸을 돌려놓은 뒤, 오른손으로 남자의 뒷목을 움켜잡는다.
남자A가 뒷목으로 전해지는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른다.
아아아!!! 소리를 지르며 최영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는 남자A.
더 큰 고통으로 온몸이 뒤틀릴 뿐이다.
최영이 왼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남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다 뗐다 장난을 친다.
남은 두 명이 현수 쪽을 돌아보면 현수가 기절한 남자의 뺨을 툭툭 치고 있다.
두 명 중 한명이 겁에 질려 딸꾹질을 한다.
나머지 한명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시발, 좇됐네...하고 중얼거린다.

#21. 승혜의 식당 뒷골목. 밤.

시간경과.
최영이 한껏 불량한 포즈로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고 있다.
남자 네명이 엎드려 있고 현수가 방망이로 차례대로 엉덩이를 후리고 있다.
한명씩 맞을 때마다. 윽!하는 신음이 터져 나온다.

최영
(신이 나서) 이거 씨발~! 옛날 생각 나는구만~!
너 이 새끼들, 잘 안맞고 컸다며? 니미 씨!..,
나 때는 말이야~ 학교에서 선생한테 터져, 집에서 부모한테 터져,
밖에서는 지들끼리 치고 박고. 아주 인생이 와일드 했단 말이지?
군대? 거기는 씨발! 말도 하기 싫고!
근데~ 니놈 새끼들은 그런걸 안 겪어봐서 그런지 그게 없단 말이야.
그...그 뭐냐...시발, 아! 야수성? 그걸 찾아 볼 수가 없어!
그니까! 오늘 이후로 또 뭉쳐 다니다가 나한테 걸리면,
다 같이 불알 한쪽씩 떼는걸로 한다. 알았냐?
남자들

(힘겹게) 네...

최영

지랄하네! 이 새끼들 이거...대답 소리가 영...개미 방구소리만하네.
로빈아! 얘들이 빠따가 모자란가 본데?

남자들

(큰소리로) 아닙니다!

최영

쉬잇! 조용히 해! 동네 사람들 다 깨우겠네.
얘들아, 니네 세대는...개인주의, 그래! 개인주의야.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해. 알겠냐?
알아들었으면 개인 단위로 흩어진다. 실시!

남자들

(벌떡 일어서며) 실시!

각자 간격을 벌리고 뿔뿔이 흩어진다.
현수에게 머리를 맞은 남자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열심히 뛰어간다.

최영

밤 늦게 수고했다.

현수

(웃으며) 아닙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도 풀고 좋았습니다.

최영

(곰곰히 말을 되씹다가)...이런 씨발!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 아냐? 간만에 너도 엎을래?

현수

아닙니다!

현수가 뛰어서 사라진다.
최영이 피식!한 뒤 담배꽁초를 버리고 여유롭게 골목을 걷는다.

#22. 최영의 아파트 거실. 밤.

불꺼진 최영의 집.
최영이 현관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온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최영.
그의 눈에 낯선 남자 구두가 눈에 띈다.
순간 최영의 표정에 긴장감이 흐르고 인기척을 느껴본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가는 최영.

동규
그냥 들어와 이 쫄보새끼야.

최영
(긴장이 풀리며) 아이씨! 남의 집에 올 때는 말 좀 하고 옵시다!
(거실의 불을 켜며) 불도 좀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던 동규가 최영을 쳐다본다. 술이 취해 풀린 눈빛이다.

동규
남의 집? 이게 왜 남의 집이야.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이 씹새야!
(테이블을 툭 차며) 집 꼬라지가 이게 뭐여? 돼지우리여?
이러고 여기서 떡이 쳐지냐?

최영
(짜증) 아~ 또 떡 소리요!? 오긴 누가 온다고!

동규
(피식) 하기사 이제 예전 같지 않지?
옛날엔 여자 향수 냄새가 좆나게 진동을 했었는데 말이여.
날마다 다른 냄새로다가.

최영
아 근데 갑자기 왠일이에요? 뭐, 가정방문?

동규
그래그래.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치며) 일단 여기 와서 앉어봐.

최영

(옆에 앉으며) 뭐가 있긴 있나보네

동규
아니 니가 아침에 얘기를 꺼내서 말이여. 씨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좆 같은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부렀으.

최영
아 뭘 또 다 지난 얘기를 합니까!

동규
그니까 말이여! 나도 다 지난 얘긴 줄 알았지.
(옷을 까뒤집어 보이며) 이만한 칼빵이 났어도! 이게 언제 그랬던가?
할 줄 알았단 말이여.

최영
(능청스럽게) 아 이거? 이거 언제 그랬더라?

동규
(웃음) 아! 이 씨벌놈아!
(갑자기 진지) 형두...그 찢어 죽일 새끼가 큰 형님 재끼지만 않았어도
대통형님 제주도까지 도망가시지도,
우리가 이 구석탱이에 숨죽이고 있지도 않을 것인디 말이여...

최영
아 10년도 더 된 얘기를 왜 자꾸 하는건데요~
그러고 다시 형두 밑으로 들어가자고 한건 형님이잖소!

동규
그니께...그때 니가 나 안구해줬으면 형두고 나발이고
요러코롬 앉아서 이빨이나 터는 것도 못했겄지?

최영
알면 정신차리고 집에 들어가세요.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동규
씨벌! 물 건너 있는 것들이 내가 집에 들어갔는지 알게 뭐여...
(한참 뜸을 들인 뒤) 영아...

최영
(귀찮) 왜요?

동규
그 식당 아무래도 작업해야겠다.

최영
(황당) 어디? 승혜네?
(짜증) 아니 씨...갑자기 얘기가 왜 그쪽으로 흘러요?

동규
그 식당집이 건물주인이라더라...
애비되는 영감탱이가 도박에 미쳐서 건물 담보로 은행부터 사채까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건 싸~악 다 끌어다 썼더라.
그러고 빚쟁이들 찾아오니까 아프다고 구라치고 입원해 버린거지.
씨벌 영감탱이! 우리 그 돈 어차피 다 못 받어.

최영
(따지듯이) 그래서요? 어차피 못 받을 꺼 알면서 작업은 왜?

동규
그 동네가 조만간에 재개발이 될꺼라는구만!
소스도 확실하고 채무이전 감당 할 총알도 원조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돼. 너 자신 있지?

최영
그래서 그걸 나보고 하라구요? 형님!

동규
(버럭) 믿을만한 놈이 너 밖에 없어서 그래 이 새꺄~!!
재개발 얘기 돌기 시작하면 우리 말고도 거기 침흘릴 놈들 많어!
그 전에 우리가 먹어야될꺼 아녀~ 씨발!
이거 잘만하면?...우리 다시 큰물 가서 비벼볼 수 있어!

최영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동규
못하겄다고?...
(뜸 들이다가) 그려 시벌! 접어! 접자, 그냥!
이참에 그냥~ 아예 이 바닥을 떠버리자고.
여기랑 상도동 비라랑 그리고 사무실까지 싹 다 정리하고!
외국가서 마누라랑 애새끼들 데리고 김밥장사나 할라니까~
니가 애들 데리고 길바닥서 어떻게 잘 해봐. 알았지?
나 갈라니까 내일부터 나 찾지말어!
(비틀비틀) 나 간다.

최영
아 형!

동규
(버럭) 이 씨벌!!! 내가 나만 좋자고 이려?
이 좆~! 같은 바닥에서 그래도 이 만큼 버텼으면 뭐라도 해보고 가야지.
언제까지 형두 저 씨부럴 놈한테 굽신거려야 되겄냐? 어!?
언제까지 그 좁아터진 사무실에서 덩어리들이랑 부대끼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냐고!!

최영
...

동규
(서글프게) 영아, 이런 기회 자주 오는거 아니여...너도 잘 알자녀?
내가 나만 좋자고 이러냐?...니가 안하면 내가 해.
내가 직접 했으면 좋겠어?

최영이 마지못해 고개를 가로 젓는다.

동규
(최영의 뺨을 톡톡치며) 그려...고 딸내미부터 시작해봐~
애미는 지 새끼 일에는 정신 못 차리는 법이니께.

동규가 나가고 최영이 미간을 찌푸린 채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

#23. 채연의 학교 앞. 낮.

채연을 멀리서 훔쳐보는 시점.
평범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정문.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교문에서 쏟아져 나온다.
친구들과 무리를 이룬 채연이 즐겁게 수다를 떨며 하교한다.

#24. 하교 길. 낮.

채연이 친구들과 중간에 헤어지고 혼자 발걸음을 옮긴다.

#25. 승혜의 식당 앞. 낮.

채연이 승혜의 식당 건너편 횡단보도에 서 있다.
신호가 바뀌어 건너려는데 길가에 정차된 차에서 최영이 고개를 내밀고 말을 건다.

최영
(반갑게) 오 승혜 딸! 또 만나네?

채연
(노려보며) 또 오셨네요?

최영
(능청)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채연
(쌀쌀맞게) 아 그래? 안녕히 가세요.

최영
엄마한테 못 들었나? 우리 화해했는데.

채연
그래서요?

최영
그래서요라니?
엄마 친구를 봤으면 안녕하세요가 먼저 아닌가?

채연
(마지못해) 안녕하세요.

최영
어 그래. 안녕? 건너려던 아닌가? 가봐.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이자 채연이 다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
반쯤 건넜을 때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흰색 승합차가 갑자기 달려나간다.
채연의 앞을 가로막더니 사람이 나와 순식간에 채연을 태우고 달아난다.
최영이 덤덤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떠나간 차를 바라보던 최영이 시선을 옮겨 식당 안의 승혜를 바라본다.
승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식당일에 열심이다.

#26. 모텔 복도. 저녁.

허름한 모텔의 어두컴컴한 복도.
최영이 계단에서 올라와 복도에 들어선다.
걸음을 옮겨 부하가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27. 모텔 침실 안. 저녁.

노을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허름한 모텔 방.
침대 한 가운데 입에 청테이프가 붙여진 채 손발이 묶인 채연이 누워있다.
채연이 코를 훌쩍거리며 울고 있다.
최영이 들어오자 울음을 그치고 죽일 듯이 최영을 노려보는 채연.
최영이 창문을 닫은 뒤 채연의 뺨을 후려갈긴다.
고갯짓을 하자 따라들어 왔던 부하가 나가고 최영이 채연의 옷을 벗기기 시작한다.

#28. 모텔 복도. 저녁.

부하가 지키고 있는 방문을 뚫고 채연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몇 번의 우당탕 소리가 이어지고 채연의 비명이 끊어진다.
잠시 정적이 이어지다가 코에 휴지를 꼽고 옷가지가 흐트러진 최영이 방에서 나온다.

최영
(코를 만지며) 아이씨! 어린 년이 손이 맵네.

(부하에게) 다 됐으니까 정리하고 형두파에 연락해서 넘겨.

최영이 다시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간다.

#29. 모텔 침실 안. 저녁.

문을 지키던 부하가 난장판이 된 방으로 들어온다.
널부러진 채연의 교복을 주섬주섬 챙긴 뒤,
이불을 두르고 방 구석에 쭈그린 채 울고 있는 채연에게 다가간다.
채연의 양쪽 뺨이 새빨갛게 부어있다.
침대 가운데에는 관계를 암시하는 붉은색 피가 선명하게 물들어 있다.

#30. 달리는 승용차 안. 저녁.

세단. 현수가 운전. 뒷좌석에 최영.
최영이 씁쓸한 표정으로 옷가지를 다듬고 있는데 전화기가 울린다.

최영
여보세요?

부하X
네, 형님 접니다. 지금 도장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근데, 형님이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안된다고 할까요?

수화기 너머로 오빠! 송최영! 이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승혜의 목소리가 들린다.

최영
(귀찮다는 듯이) 아이씨...바꿔줘!

부하
네. (목소리 멀어지며) 일로 데려와.

승혜
(울먹이며) 오빠! 오빠~ 우리 채연이 어딨어?

최영
(난감해하며) 어~그래! 승혜야. 채연이 내가 잘 데리고 있어.

니가 잘 협조해줘서 채연이도 집에 금방 돌아갈꺼 같애.

승혜
오빠...채연이 목소리 한번만 들려줘...
최영
(당황하며) 어~그래! 채연이가 지금...잠깐...어~그래! 화장실 갔나보다.
금방 올꺼야 오면 내가 다시 전화하라고 할게!

승혜
(간절하게) 오빠...나한텐 채연이 밖에 없어. 채연이 잘못되면...제발 오빠...
(울음) 송최영...니가 우리 채연이한테 그러면 안돼!...
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 (입을 틀어막혀) 읍!읍!

부하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요?

최영
(한숨)...아니 기다리지 알아서 말고 정리해.

최영이 전화를 끊는다.
최영이 창 밖을 바라보며 인상을 찡그리고 깊게 한숨을 쉰다.
한숨 끝에 **시발!**이 따라나온다.

#31. 승혜의 식당 주방. 밤.

부하X와 나머지 한명이 정신을 잃은 승혜를 위 아래로 나눠들고 방에서 나온다.
조심스럽게 주방 바닥에 눕힌 뒤 부하X가 휘발유가 든 말통을 들고 운동장에 줄을 긋듯이 뿌리며 주방에 난 뒷문으로 나간다.
나머지 한명이 가스밸브를 열고 호스를 칼로 자른 뒤 뒷문으로 나간다.

#32. 승혜의 식당 뒤 골목. 밤.

식당건물 뒤편의 좁고 어두운 골목.
승혜의 식당 주방에서 나온 두 사람이 말없이 담배를 피운다.
부하X가 휘발유 위에 담배를 튕기고 두 사람이 골목을 걸어간다.
담배꽁초로 인해 휘발유에 불이 붙고 서서히 불이 식당 안으로 번져 나간다.
잠시 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승혜의 식당이 폭발한다.

식당 근처 골목에서 승용차 한대가 나와 도로에 합류한다.

#33. 승혜의 장례식장. 밤.

승혜의 영정사진이 걸려있는 텅 빈 장례식장 안.
상복을 입은 노인이 넋이 나간 채 상주 자리에 앉아 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최영이 들어와 조문을 한다.

노인
(의아) 저희 딸이랑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지...

최영
(당황)...젊었을 때 직장 동료였습니다.

노인
(더욱 의아) 저희 딸은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없는데...

최영
(난감한 표정) ...

노인
(무신경)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노인이 최영의 뒤에 대고 말한다.

노인
오랜만에 병원에서 나왔는데...참 씁쓸합니다.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좋다 했더니
딸은 죽고 손녀는 실종이라니...

최영
손녀 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껍니다.

노인
(고개를 저으며) 걱정 같은 거 안합니다.

어차피 거둬 멕일 처지도 아니고,
애비가 누군지도 이제는 영영 모르게 됐으니...

최영
(조심스럽게)...채연이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십니까?

노인
(고개를 저으며) 언제 그런 말은 하더군요.
애아빠가 누군지 안까먹으려고 이름을 채연이라 지었다고.
허허...뭐 죽었으니 까먹고 안까먹고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만...

#34. 달리는 승용차 안. 밤.

세단. 현수가 운전. 뒷좌석에 최영.
뒷좌석에 앉은 최영이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낸다.
송최영 세글자가 써진 조의금 봉투를 물끄러미 보던 최영이 봉투를 꽉 움켜쥔다.
창밖을 보는 최영의 눈이 젖어있다.

#35. 오피스텔 안. 밤.

기본적인 가구들만 놓여진 삭막한 풍경의 원룸형 오피스텔 안.
채연이 침대 위에 쪼그려 앉아있다.
번호키가 눌리는 소리가 나고 건달과 함께 최영이 들어온다.

최영
(건달에게) 어 맞네. 나가봐.

건달
그건 좀 곤란합니다. 형님.

최영
(위협적으로) 얘기만 할게. 얘기만. 어차피 우리가 데려온 애 아냐?

건달이 기에 눌러 꾸벅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사라진다.
최영이 방안을 둘러보며 어슬렁 거린다.
채연이 겁에 질린 눈으로 최영을 빤히 바라본다.

최영
(어색하게) 그...지난번엔 말이야...내가 미안했다.
내가 터치가 좀 과격했지?
채연
(끄덕끄덕)...

최영
(채연의 옆에 앉으며) 그래, 여기는 어떻게 지낼만하고?

채연이 최영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는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채연
(힘 없이) ...얼마에요?

최영
응?

채연
엄마가...아니 할아버지가 빌렸다는 돈이 얼마냐구요...

최영
어 그게 말이야...얼마냐하면...

채연
(다급) 얼마든 제가, 제가 갚을게요.
평생 일해서 버는 돈 다 드릴게요.
(울먹) 그것도 모자라면 콩팥이든 뭐든 팔테니까...저 집에 보내주세요...
이 일만 아니면 뭐라도 해서 갚을테니까...엄마랑 살게 해주세요...네?
(울음) 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아저씨 흑흑...

최영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손수건을 꺼내 채연에게 건낸다.
눈물을 닦는 채연의 머리를 쓰다듬는 최영.
채연이 지난 밤의 트라우마로 굳어버린다.
채연의 바들바들 떨림이 최영의 손에도 전해진다.
최영이 말없이 일어나 손수건을 돌려받고 방에서 나간다.

#36. 엘리베이터 안. 밤.

채연의 오피스텔 방을 안내한 건달과 최영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다.
최영이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손을 뺀다.
최영의 손에 채연의 머리카락이 붙어있다.
머리카락을 손수건에 잘 싸서 안주머니에 집어넣는 최영.

#37. 조직 사무실. 낮.

평소와 같은 동규의 사무실.
동규가 소파에 앉아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른다. 김양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인터넷 쇼핑 중.
최영이 현수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온다.
현수가 동규에게 꾸벅 인사를 한다.

동규
(반갑게) 어~그래! 내 새끼 영이 왔어?
요새 왜 이렇게 코빼기도 안보였냐~ 보고싶어 죽는줄 알았는디!
아직 밥 안 먹었지? 가자! 내가 사시미 기가 막힌 집 알아놨응게.
현수! 니는 오늘 여기 애기들이랑 좀 먹어라잉~

동규가 최영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사무실을 나간다.

#38. 횟집 안. 낮.

고급스런 분위기의 횟집.
방으로 된 자리에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동규가 게걸스럽게 먹고 있다.
최영은 그런 동규를 바라보며 혼자서 사케를 따라 마신다.
정신없이 음식을 먹던 동규가 최영을 의식하고 손을 멈춘다.

동규
별로여?

최영
(차갑게)...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델 다 온 거요?

동규
아따! 다 먹고 얘기혀. 다 먹고. 일단 먹어~먹어!

동규가 다시 정신없이 먹는다.
얼마 못가 자신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최영을 의식하고 젓가락을 탁 놓는다.

동규
니미~ 체하것네 체하것어.
기분이 쪼까 그런거 같아서 맛있는 거 좀 사멕일랬더만!

동규가 최영을 흘겨보며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자켓을 뒤적거린다.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최영에게 건내는 동규.
최영이 받아 봉투의 내용물을 꺼내 본다.

최영
(눈이 커지며) 이게...이게 뭐요?

동규
(담담하게) 작업 하나 더 해야쓰것다.

최영
(짜증) 아 또?! 식당 작업 한지 얼마나 됐다고!

동규
(다급하게) 목소리 낮춰 이 시끼야! 사람 죽였다고 동네 광고할 일 있냐!

최영
좀 쉬엄쉬엄 합시다. 예?

동규
(분노) 이런 씨부럴! 탄력 받았을 때 치고 올라가야지,
스돕하면 뒤로 미끄러지는 게 이 바닥인거 몰러?
지금이 형두 잡고 올라설 절호의 기회여 기회!
...마침 그 씨불놈 딸년이 한국에 잠시 들어온다니까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잡아서 바로 묻어버려.
그라고 너는 바로 중국이든 어디 나가 있고.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께.

최영
(못마땅한 표정으로)...

동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우리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미소를 얼굴 가득 띄우며) 이 형만 믿어~~

#39. 최영의 아파트 건물 현관. 밤.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최영의 세단.
건물의 입구에 멈춰서면 뒷좌석에서 최영이 내린다.
운전석에서 내린 현수가 최영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타서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최영이 우편함에 꽂힌 봉투를 발견하고 꺼내서 확인한다.
유전자확인기관에서 온 봉투.
주변을 살핀 최영이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는다.

#40. 최영의 아파트 거실. 밤.

최영이 소파에 앉아 있다.
소파 앞 테이블에는 찢어진 봉투와 꺼내어진 서류, 뚜껑이 열린 소주가 있다.
최영이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나발 채로 벌컥벌컥 마신다.
테이블 위 서류에는 친자 99.99%라고 표기되어 있다.
최영이 미친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며 울다가 웃다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가 분노했다가 다시 웃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41. 달리는 승합차 안. 낮.

채연을 납치한 것과 같은 흰색 승합차.
승혜를 처리했던 두명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고 뒷자리에 최영이 타서 가고 있다.
최영은 선글라스를 낀 얼굴임에도 초췌함이 드러난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서해 바다가 펼쳐져 있다.

#42. 인천공항. 낮.

도착하는 곳에 서있는 최영과 부하 둘.
최영이 서류를 펼쳐 게이트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대조하고 있다.

그때 사진과 동일한 얼굴을 한 지민이 통화를 하며 게이트에서 나오고 있다.
최영과 부하들이 지민에게 다가간다.

지민
(유창한 영어로) Yes, just arrive now. fucking Korea. Smell suck. I don't care! mam~ He was...(최영을 발견하고) Later!

전화를 끊은 지민이 캐리어를 부하 중 한명에게 패스하듯 굴린다.
자연스럽게 앞장서서 걷다가 멈춰서 최영과 부하들을 돌아본다.
최영이 선글라스를 올리고 지민을 유심히 본다.

지민
(어디로 가냐는 제스쳐를 하며) 아빠가 보낸 사람들 아니에요?

최영
(당황하며) 어! 그래. 우리는 형두 형...

지민이 황급히 쉿!쉿!하며 최영의 말을 끊는다.

지민
(속삭이듯) Hey! no more gangs! 거기 친구들도 같이 왔단 말이에요! 깡패 티내지 말고 빨리 가요.

지민이 최영의 팔을 잡아끌며 이동한다.
지민과 최영 일행이 이동하자 그 뒤로 지민을 찾고 있는 형두의 운전수가 보인다.

#43. 달리는 승합차 안. 낮.

운전석과 조수석에 부하들.
뒷좌석에 지만과 최영
시트를 재끼고 목베개, 안대에 귀마개까지 하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지민.
최영은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차창 밖 풍경이 숲으로 바뀌더니 차의 흔들림이 심해진다.
최영의 핸드폰이 울린다.

최영

(심드렁하게) 여보세요.

동규
(긴장) 어! 그래. 잘 만났냐?
최영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동규
그래 일단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고.
마무리 잘혀라!

전화를 끊은 최영이 휴대폰으로 자고 있는 지민을 찍는다.
핸드폰에서 찰칵 소리가 나자 지민이 반사적으로 깨어난다.
지민이 안대와 귀마개를 빼며 최영을 쳐다본다.

지민
아저씨 뭐하는 거에요? 나 찍은 거에요?

최영
(당황하며) 아니? 아닌데?

지민
(손을 내밀며) Show me your phone.

최영
아니 아빠!...너네 아빠가 사진을 보내달래서. 빨리 보고 싶다고.

지민
아빠? Why not 형님?
(두리번거리며 당황) 지금 어디가는 거에요?

최영
(한숨) 하...
(갑자기 정색) 조용히 가자.

달라진 최영의 태도에 위축된 지민이 살그머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다.
최영이 재빠르게 손을 뻗어 핸드폰을 쥔 지민의 팔을 낚아챈다.

아!하고 지민이 아픈 티를 낸다.
최영이 지민의 손에서 핸드폰을 뺏는다.
지민이 **hey!**하며 달려든다.
최영이 한손으로 지민의 얼굴을 밀며 저지한다.
핸드폰 전원을 끄려는 최영과 말리려는 지민의 몸싸움이 시작된다.
지민의 반항이 격렬해지자 최영이 지민의 얼굴을 밀어버린다.
지민이 반대쪽 창에 머리를 박더니 뒤통수를 감싸고 엎드려 운다.
지민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최영이 창문을 열어 밖으로 던져버린다.

최영
(짜증) 아직 멀었냐?

부하X
(긴장) 거의 다 왔습니다.

#44. 야산 창고 앞. 저녁.

산속에 위치한 낡은 창고.
지민을 태운 승합차가 창고 앞에 선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부하들이 내린다.
뒷문이 열리고 최영이 울고 있는 지민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차에서 내린다.
최영이 잡은 머리채를 흔들 때마다 **아!아!**하고 지민이 울부짖는다.
네 사람이 창고로 들어간다.

#45. 야산 창고 안. 저녁.

흙바닥의 창고.
노란색 백열전구 아래 큰 비닐이 깔려 있다.
나무 탁자 위에는 녹슬은 톱과 날카로운 칼이 섬뜩한 느낌으로 놓여 있다.
최영이 지민을 끌고 와 비닐 위에 밀쳐버린다.
지민이 힘없이 비닐 위에 쓰러져 바들바들 떨며 흐느끼고 있다.
최영이 무표정한 얼굴로 탁자 위에 놓인 칼을 집어 들고는 지민 앞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는다.
칼을 까딱까딱하며 생각을 하다가 일어서서 물러선다.

최영
(냉정) 다 벗어.

지민
네...네?

최영
입은 옷 다 벗으라고, 이 년아. 뒤지기 싫으면.

지민이 바들바들 떨면서 옷을 벗기 시작한다.

최영
(버럭 소리를 지르며) 빨리 빨리 벗으라고 씨발!

겁에 질린 지민이 다급하게 훌렁훌렁 옷을 벗는다.
지민이 속옷만 입은 채로 수치심에 떨고 있는데 최영이 부하들을 향해 말한다.

최영
(귀찮) 피곤하다. 니들이 마무리해.

부하X
(당황) 네?

최영
(짜증) 차에서 자고 있을 테니까, 마무리 하고 얘기하라고!

부하X
네, 형님.

최영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부하들이 음흉한 눈빛을 교환한다.

#46. 야산 창고 앞. 저녁.

최영이 창고 앞을 서성이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창고 안에서 지민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최영이 주문을 외우듯 **시발**을 연신 중얼댄다.
부하X의 **읏!**하는 신음소리가 들리자 최영의 눈빛에서 살기가 돈다.
최영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옆에 놓인 주먹만한 돌을 집어 든다.

#47. 야산 창고 안. 저녁.

창고문을 열고 최영이 들어오고 부하 둘이 황급히 바지를 주워 입는다.
지민은 다급하게 옷가지로 주요 부위들을 가린다.

최영
(버럭) 이 개새끼들아!

부하X
(다급하게) 혀...형님!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최영
닥쳐 이 씨발놈아!

최영이 부하X의 얼굴을 돌로 후려친다.
부하X가 쓰러지자 돌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다.
부하Y가 놀라 바지를 바닥에 떨구고 뒤로 물러선다.

부하Y
(놀람) 혀...혀...형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진정하십쇼!

최영이 내려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나 부하Y를 노려본다.

최영
진정? 야 이 개새끼야 너 같으면 진정하겠냐?

부하Y
죄송합니다.

최영
죄송하면 대가리 일루 가져와. 일루와! 씨발!

최영이 다가가자 부하Y가 슬금슬금 물러선다.
우물쭈물하던 부하Y가 **아이씨!**하며 양말에 숨겨둔 칼집에서 나이프를 뽑아든다.

최영

그래 시발 내 그럴줄 알았지.

부하Y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형님. 제발 그만 하십쇼.
최영
하 이 개새끼, 형님한테 명령이나 하고, 하나만 물어보자.
장동규가 시켰냐?

부하Y
뭐가 말입니까?

최영
시발! 왜~ 현수랑 하면 될 일을 굳이 너네 둘을 붙여줬을까? 응?
(바닥에 깔린 비닐을 발로 차며) 그리고 여기 이 비닐은 왜 두장이냐?
한 장은 내꺼 아냐?

부하Y
(체념한듯) 시발, 그냥 조용히 가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형님.

최영
(놀람) 진짜구만? 왜? 이유가 뭐야?
장동규가 왜 날 죽이려는거야?

부하Y
(잔스텝을 밟기 시작하며)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야 시키는대로 하는거지!

최영
이 개새끼 말하는 싸가지 보게. 그래 해봐 어디!

부하Y
아이 씨발!

말을 끝냄과 동시에 달려드는 부하Y.
최영이 돌을 던져 부하Y의 허벅지를 맞추자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린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최영이 거리를 좁혀 칼을 든 부하Y의 오른손을 제압한다.
동시에 자신의 오른손으로 부하Y의 목을 힘껏 조른다.

부하Y가 괴로움에 인상을 쓰고 **켁!켁!** 거리며 최영의 옆구리에 주먹을 날린다.
최영이 **악!**하고 고통스러워 하며 옆구리를 웅크린다.
일그러진 표정의 최영이 부하Y의 오른팔을 꺾으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부하Y가 뒤로 넘어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힌다.
순간 부하Y의 목이 꺾이면서 뚜둑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최영이 부하Y의 목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는다.
날숨을 타고 최영의 욕지거리가 조용한 창고 안을 울린다.
호흡을 가다듬던 최영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부하X에게 다가간다.
부하X의 입에 귀를 가져가 그의 생사를 확인한다.
최영의 귀에 부하X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린다.
최영이 일어나 지민에게 다가간다.

최영
옷 입어.

지민
네?

최영
(등지고 돌아서며) 옷 입으라고. 빨리!

지민이 영문도 모른 채 황급히 옷을 챙겨 입는다.
그때 최영의 핸드폰이 울린다.
최영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받지 않고 물끄러미 화면을 바라만 본다.
화면에 동규형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
벨이 잠시 울리더니 전화가 끊어진다.
부하들의 시체를 둘러 본 최영이 깊게 한숨을 쉰다.
그때 어디선가 희마하게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린다.

최영
(다급) 가만, 움직이지 마!

겉옷에 막 팔을 끼우던 지민이 그대로 얼음이 된다.
진동 소리를 쫓아 귀를 기울이던 최영이 부하X의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동규의 이름이 떠있다.
고민하던 최영이 통화버튼을 누르고 말없이 핸드폰을 귀에 가져다댄다.
동규 역시 말이 없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다.

잠시 뒤 동규의 목소리가 들린다.

동규
…너 영이냐?

최영이 전화를 끊어버린다.

최영
나가자.

옷을 다 입은 지민이 머뭇거린다.

최영
(냉정) 싫어? 그럼 여기 있던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최영.
지민이 그를 따라 나가려다 바닥에 떨어진 부하Y의 칼을 줍는다.
떨리는 손으로 부하X의 아랫도리에 칼을 꽂는 지민.
부하X가 **으윽!**하는 비명을 지르더니 몸을 부르르 떨다가 죽어버린다.
부하X의 목에 손을 대고 죽음을 확인한 지민이 창고 밖으로 나간다.

#48. 달리는 승합차 안. 밤.

최영이 운전을 하고 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의 지민이 조수석에 앉아 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차창 밖의 풍경이 산에서 시골 동네로 바뀐다.
최영이 골목길에 차를 세우더니 내린다.
짐칸에서 지민의 캐리어를 꺼낸 최영이 조수석 문을 연다.

최영
내려

지민
네? 여기가 어딘데요?

최영
이승. 더 가면 저승이야. 빨리 내려.

지민이 포기한 듯 고분고분 차에서 내린다.
최영이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원 지폐 몇 장을 건낸다.

최영
택시 타고 집에 가.
가서 니네 아빠한테 장동규가 죽이려고 한거 송최영이 살려줬다고 전해.

지민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다.

최영
(체념) 하...알아서해. 간다.

최영이 다시 운전석에 올라 지민을 둔 채 차를 몰고 가버린다.
창 밖에 지민의 모습이 사라지고, 핸드폰을 꺼내 현수에게 전화를 거는 최영.

최영
나다, 지금 어디냐?

#49. 오피스텔 건물 앞. 밤.

채연이 갇혀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 앞.
흰색 승합차가 쌩하니 달려와 거칠게 멈춰선다.
운전석에서 내린 최영이 오피스텔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50. 엘리베이터 안. 밤.

최영이 초조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만 바라보고 있다.

#51. 오피스텔 복도. 밤.

13층.
엘리베이터 옆에 채연의 방을 안내했던 건달이 쓰러져 있다.
엘리베이터가 열린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최영이 쓰러진 건달을 발견하고 복도를 내달린다.

#52. 오피스텔 안. 밤.

채연이 있던 오피스텔 방.
불이 꺼져 있다.
살짝 열린 현관 문 틈 사이로 보이는 복도의 불빛이 더 밝게 느껴진다.
복도를 달리는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최영이 거칠게 문을 열어 젖힌다.
복도의 불빛이 방안으로 쏟아지면 침대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있는 현수가 보인다.

최영
(놀람) 현수야! 야 임마!

현수가 울컥하고 입에서 피를 쏟아낸다.
배에는 깊게 찔린 상처가 있다.
쇼크로 정신이 혼미해져 풀린 눈의 현수.

현수
형님...피하십시오. 어...도...동규 형님이...

현수가 눈동자로 화장실을 가리킨다.
최영이 바짝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화장실 문으로 조심히 다가간다.
숨죽이며 조심히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확!하고 문이 열리며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나온다.
최영이 상체를 뒤로 숙이며 피하는데 칼날이 최영의 뺨을 살짝 스친다.
칼날에 묻어있던 피가 최영의 얼굴에 뿌려진다
얼굴에 튄 피를 닦으며 최영이 욕지거리를 내뱉는다.

최영
이런 씨발놈이!

모자남
뒤져. 이 새끼야!

모자남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최영이 요리조리 피한다.
피하기를 반복하던 최영이 모자남을 껴안듯 몸을 던지며 바닥을 뒹군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천정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모자남의 뒤를 잡은 최영이 모자남의 손을 비틀어 칼날이 모자남의 목을 향하게 한다.
모자남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틴다.
두 사람이 용을 쓰고 있는데 현수가 기어와 최영에게 힘을 보탠다.

칼날이 서서히 모자남의 목에 박히고 모자남의 입에서 주르륵 피가 쏟아진다.
고통스런 표정을 짓던 모자남이 어느 순간 얼어버리고 칼날이 푸욱하고 깊게 박힌다.
셔츠를 온통 피로 물들인 최영이 모자남을 밀쳐내면서 일어난다.

#53. 오피스텔 복도. 밤.

최영이 현수를 부축하며 방을 빠져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건달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온다.
최영과 현수가 황급히 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잠근다.

#54. 오피스텔 안. 밤.

문 앞에는 건달들이 들이닥쳐 소란스럽다.
잠시 뒤 열쇠를 돌리는 소리와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난다.
최영이 걸어 둔 안전고리 때문에 문이 조금 밖에 열리지 않는다.
열린 문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욕지거리를 하는 건달들.
안전고리를 부수기 위해 용을 쓴다.
최영은 방에 불을 켜고 무기로 쓸만한 것들을 찾아보다가 소화기를 발견한다.
망설임 없이 안전핀을 뽑고 문틈으로 소화기를 쏴버린다.
뿌연 연기가 자욱이 퍼지고 건달들의 비명과 기침과 욕지거리로 아수라장이다.
최영은 창문을 열고 기침을 하다가 완강기를 발견하고는 재빠르게 설치를 한다.
설치를 마친 최영이 현수에게 벨트를 채워 아래로 떨어뜨린다.
정신을 잃은 현수가 스르륵 바닥을 향해 내려간다.
우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전고리를 뜯어낸 건달들이 들이닥친다.
최영은 모자남의 목에서 칼을 빼어들어 건달1의 다리를 찔러대기 시작한다.
칼에 찔린 건달1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건달2가 방망이를 휘둘러 최영의 등을 가격한다.
악!하며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는 최영.
최영이 넘어지면서 휘두른 칼을 피하려던 건달3이 모자남의 피에 미끄러진다.
최영이 넘어진 건달3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뒤 재빨리 몸을 일으킨다.
벽에 등을 대고 다시 싸울 자세를 취하는 최영.
건달2가 휘두르는 방망이를 피한 뒤 방망이를 쥔 양팔을 찔러버린다.
고통스러워하는 건달2를 밀쳐서 방패로 삼고 몸을 날린다.
건달4에게 날라차기를 날린 뒤 건달5의 귀를 잡아 뜯을 듯이 비튼다.
건달5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자 나머지 건달6, 7이 뒤로 물러선다.
건달5가 손에 든 칼을 놓치고 양손으로 귀를 부여잡으려 한다.
최영이 귀를 잡아 당겨 그를 일어서게 만든다.

건달5의 비명소리가 처절하다.
일어선 건달5의 목에 칼을 대는 최영.
건달5를 인질삼아 서서히 방을 빠져 나간다.

#55. 오피스텔 1층 로비. 밤.

계단실 문이 열리고 건달6, 7이 숨을 헐떡이며 내려온다.
1층을 향해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의 양옆에 몸을 바싹 붙인 채 칼을 들고 숨는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다.
건달6, 7이 동시에 덮치는데 혼자서 귀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기절해 있는 건달5.

#56. 달리는 승합차 안. 밤.

최영이 조수석에 앉은 현수의 상처를 누르며 운전을 하고 있다.

> **최영**
> (다급하게) 현수야! 김현수! 정신차려. 이 새끼야!
> 잠들면 안돼! 현수야!

현수가 의식을 잃은 채 창에 머리를 대고 식은땀을 흘리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다.
최영의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새어 나온다.

#57. 응급실 앞. 밤.

피로 범벅이 된 채 응급실 앞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고 있는 최영.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있다.
한참 동안 담배를 피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일어난다.
담배를 비벼 끄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최영.
그가 떠난 벤치 밑에는 상당한 양의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

#58. 동규의 사무실 앞 복도. 밤.

상가 건물의 좁은 복도.
십여 명의 건달들이 저마다 연장을 들고 두 줄로 정렬해 있다.

#59. 동규의 사무실 안. 밤.

동규와 채연이 소파에 앉아 있다.
미간을 찌푸리며 요리조리 채연을 뜯어보는 동규.

동규
(으름장) 진짜 아까 말한 게 전부야?
아저씨한테 구라치면 오피로 안 끝나. 애기야.

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동규
아~이런 씨벌! 분명히 고것이 다가 아닐 것인디...
현수 새끼를 굳이 너한테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인디...
뭘까...? 도대체 뭘까? 그냥? 갑자기? 아니여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있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좆 같은 상황이 설명이 안돼.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부하A가 들어오자 동규가 **으어!**하고 깜짝 놀란다.

동규
(분노) 야이 개새끼야! 놀랬자녀! 시벌! 아우...심장이야...이 씨부럴꺼!

부하A
(다급) 형님! 형두파 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동규
뭐여? 이런 좆됐네. 씨부럴! 니미!...아이 씨발!
야! 가서 지금 나가있는 애들 다 불러서 이리로 오라 그래.
그리고, 그리고...우리는 그 어디냐 낮에 그...창고! 창고로 가자.
(일어나며) 가자.

부하A
(채연을 가리키며) 이 여자애는 어떻게 할까요?

동규
(귀찮) 아 몰라, 딱히 아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지네 엄마한테 보내줘야지 뭐. 아 그럼 우리랑 같이 가야 되나?
아...어떡하지? 아니다. 그냥 형두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냅둬.

(채연에게) 어~애기야. 너는 그 뭐...지금 나가서 너네 집에 가든,
기다렸다 형두네 씨발놈들이랑 다시 오피로 가든 알아서해 알았지?
그래. 잘가고, 다신 보지말자~

동규가 나가려고 문을 열자 부하B가 문 앞에 서있다. 동규가 펄쩍 뛰며 놀란다.

동규
(호들갑을 떨며) 왁! 씨발! 진짜! 이 개새끼야! 놀랬자나!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어우 이걸 그냥 씨벌!
너는 송최영이 그 개새끼 찾아오라니까 왜 그냥 왔어?!

부하B
(검사지를 보이며) 저 그게 아니고 최영 형님 집에서 이런 걸 찾았습니다.

동규
뭐? 이게 뭔데 친자확인...이게 뭐더라?
(부하B에게) 이거 그, 내 새끼가 맞나 아닌가 하는 뭐 그런거 아녀?
(심각) 니미, 이 새끼 이거 설마...

동규가 퍼뜩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지으며 채연과 검사지를 번갈아 쳐다본다.
그러다가 다시 아리송한 표정을 짓는다.

동규
(미간을 찌푸리며) 아씨... 일단! 저 년도 같이 태워서 가자.

#60. 동규의 사무실 앞. 밤.

동규의 사무실 건물 건너편 도로가.
단기렌터카 회사 로고가 박힌 경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다.

#61. 경차 안(최영)./사무실 안(동규). 밤.

야구 모자와 점퍼로 변장한 최영이 운전석에 앉아있다.
동규의 불 켜진 사무실을 지켜보고 있는데 동규에게서 전화가 온다.
잠시 망설이던 최영이 전화를 귀에 가져간다.

최영

(전화를 받으며) ...형님.

동규
오! 살아있었구나. 우리 영이! 아까 그거, 너 맞지?

최영
왜!...왜 그런겁니까?

동규
(당황) 뭐, 뭘 말이여?

최영
씨발! 나도 죽이라고 했다면서요!

동규
(오버) 아니 씨벌!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혀?
데려와봐. 주뎅이 확 찢어놓을라니께!

최영
형님...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말해보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건데!

동규
아니! 니가 안하던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께!
장례식장에 찾아가고 말이여, 따로 만나러 가고 말이여,
이상하자녀! 그라니께 괜히 의심이 들고, 쫄리고 그러니까 걍 죽여야겠다~
그랬지! 원래 제일 믿는 놈한테 당하는게 이 바닥 아니냐?!

최영
...

동규
아 니미! 이게 다 니가 진즉에 얘기를 안해서 그런거 아녀~!
미리미리 말했으면 그렇게까지 안했지~!

최영
아니 시발...대체 뭘!? 뭘 말이에요?

내가 뭘 말 안했다고 대체?!

동규
아 이 기집애가 니 딸인거 말여!! 아냐?
(조심스럽게) 얼마 전에 죽은 식당 사장년이랑 사이에서...맞지?

채연
(놀람) 뭐라고요? 누가 죽어요?

동규
(놀람) 아 뭐여! 너 말 안했냐?
(채연에게) 이 새끼가 지 마누...아니지 이거이거 뭐라 그래야되냐?
암튼! 니가 작업했자녀~ 안 그래? 얘네 엄마 니가 죽인거 아녀?

최영
(버럭) 장동규! 이 씨발놈아! 니가 시킨거 아냐!
고작 그것 때매 나를 죽이려고해?
내가 지금껏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개새끼야!

동규
(버럭) 그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디,
지금 이 개 같은 상황을 만드냐고 이 씨벌놈아!
낮에 고년 죽이고 너도 곱게 뒤졌으면 이런 전화도 다 필요 없었자녀!
시방 이게 뭐냐? 당장 형두파가 쳐들어 온다는디.
이거, 어떻게 책임질꺼여?

최영
(울분) 시발 그걸 내가 왜 책임져!
니 그 좆 같은 억지 들어주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 시발!!

동규
그려! 잘됐네! 그니까 이 참에 끝 내! 이 씨벌놈아!
근디~ 니가 좋아하는 영화에 보면 있잖냐,
요로코롬 딸년이 인질로 잡혀있으면 애비가 대신 뒤지는거, 고거 알지?

최영
(이를 악물고) 이 씨발새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개새끼!

동규
아따~ 귀 썩겄네 아주! 욕은 저승 가서 실컷 들어줄라니까.
일단 형두부터 죽여. 둘 다 뒤져 불면 최고로 좋겠지만~
어찌 됐든 형두 새끼 뒤지기 전까진, 니 딸 목숨 나한테 있는겨. 알겄냐?

최영
내가 그걸 왜 해! 이 새끼야!
내가 니 말을 또 들을 것 같애?
딸년 목숨 구하자고 내 목숨 내놓겠냐고!

동규
야...영아, 임마! 송최영!...내가 널 모르냐?
이 병신 같은 장동규도 형이라고 5층을 맨몸으로 올라 온 너여.
내가 모르겠냐고~! 이 새끼야!
너 형두 칼에 뒤지면 뒤졌지 딸년 버리고 내뺄 놈은 아니잖여?

최영
(거친숨)...

동규
어떻게든 형두 모가지 따서 낮에 그 창고로 와라잉~

#62. 동규의 사무실 앞. 밤.

검은색 승합차 3대와 검정 세단 1대가 동규의 사무실 건물 앞에 멈춰선다.
승합차에서 무기를 든 건달들 무리가 우르르 내려 건물로 뛰어 들어간다.
세단에서 날렵하게 생긴 칼잡이가 조수석에서 내린다.
뒷좌석 창문이 열리고 손이 나와 남자에게 회칼을 건낸다.
칼잡이가 정중히 칼을 받아 빠른 걸음으로 건물에 들어선다.

#63. 동규의 사무실 안. 밤.

통화를 하다가 버티컬 사이로 밖을 본 동규가 깜짝 놀란다.

동규
(버티컬 사이로 밖을 보다가) 야이 씨벌! 너랑 통화하느라 지금 늦었...
아씨! 끊어 새끼야!

동규가 전화를 끊고 채연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간다.
엄마의 죽음에 흥분한 채연이 거칠게 반항하자 힘껏 뺨을 때린다.
뒤춤에서 칼을 뽑아 채연의 눈 앞에 들이대는 동규.

동규
(살벌) 정신차려 이년아! 아까 못들은겨? 니 목숨 나한테 있다고!
(부하A에게) 야 너 내려가서 뒷문에 차 대기 시키고
(부하B에게) 넌 여기서 형두애들 막다가 나머지 합류하면 싹 다 죽여버려.
알겠어?

동규가 채연을 붙들고 부하A와 사무실을 나간다.

#64. 동규의 사무실 앞 복도. 밤.

동규 일행이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간다.
형두파 일당이 계단으로 올라와 동규의 부하들과 싸움을 시작한다.
좁은 복도에서 서로 얽히고설키며 아수라장이 펼쳐진다.
뒤늦게 올라온 칼잡이가 싸우고 있는 무리들 너머로 도망치는 동규를 발견한다.
올라왔던 계단을 다시 내려가는 칼잡이.

#65. 동규의 사무실 건물 앞. 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동규 일행이 탄 세단이 빠져나와 도로에 합류한다.
건물에서 나온 칼잡이가 뒷좌석의 열린 창틈 사이로 뭐라 이야기를 한다.
뒷좌석에서 나온 손에게 칼을 돌려 준 뒤 조수석에 타기 위해 문을 연다.
그때 최영이 달려와 칼잡이에게 날라차기를 날린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칼잡이가 비명을 지르며 문에 부딪히고 나동그라진다.
넘어진 칼잡이의 머리를 걷어차서 기절 시킨 뒤, 재빨리 조수석에 타는 최영.
문을 닫고 운전수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댄 뒤 잠근 버튼을 누른다.

최영
(운전수에게) 주머니에서 손 빼라.

운전수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고 양손을 들어 항복 자세를 취한다.

최영
(형두에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형두 형님.

형두
(중후한 말투) 그래 송최영이, 오랜만이구만.
그때 옥상에서 보고 마지막이었으니까...그게 보자...
최영
13년 만입니다. 형님.

형두
벌써 그렇게 됐나?
시발, 세월 참 빠르구만...내가 너무 오래 해먹었어.
미안하다야. 근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 딸년을 납치했다더니 또 다시 돌려보냈다고?
당최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구만.

최영
말씀드리자면 깁니다. 형님.
지금은 일단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형두
(황당) 내가, 너를?
야~ 송최영이, 나이 몇 살 쳐먹더니 겁대가리가 아주 맛이 갔나보구나?
듣자니까 내 딸이 아주 더러운 꼴을 당했다던데,
시발 뭘 알아먹게 설명을 해야지, 도와주든 죽여주든 할 거 아니냐.

최영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몰랐는데 저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을 장동규가 잡아갔구요.
딸을 구하고 싶으면 형님을 죽이라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일단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형두
(놀람) 뭐? 하참, 장동규 이 새끼도 또라이지만,

너도 참 대단하다. 이건 솔직한 건지, 병신 같은 건지.
야이 시발 그걸 그렇게 다 말하는 건달이 세상에...야 임마!
넌 가오도 없냐?...아 진짜...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운전수를 가리키며) 일단 이 새끼부터 죽여.

최영, 운전수
(동시에) 네?

형두
이 새끼가 장동규 쁘락치니까! 일단 이 새끼부터 죽여.

운전수
혀...형님! 아닙니다.

형두
야 이 개새끼야!
내 딸 한국 들어오는 거 아는 놈이 너하고 나밖에 없었는데 이 새끼야.
(최영에게) 빨리 죽이고 가자.

운전수가 최영과 눈이 마주치고 재빨리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지만
최영이 재빠르게 운전수의 옆구리에 여러차례 칼침을 놓는다.
비명을 지르는 운전수의 입을 최영이 막는다.

#66. 창고 안. 밤.

나무 테이블 위에 동규가 걸터 앉아있고 채연이 부하에게 붙들려 서있다.
낮에 죽은 시체 2구가 비닐에 싸여 한쪽에 치워져 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니 시동이 꺼진다.
잠시 후 최영이 이민가방을 끌고 들어온다.
부하가 칼을 꺼내 채연의 목에 대고서 물러선다.
동규는 테이블에서 내려와 최영을 마주하고 선다.

동규
(최영에게) 스돕! 거기 놔.

최영이 가방을 놓자 동규가 뒤춤에서 칼을 꺼내 뒤로 가라는 듯 까딱까딱한다.
최영이 뒤로 물러선다.

동규가 가방으로 다가가 욕지거리와 함께 마구 찌르기 시작한다.
푹푹 칼이 들어가는 곳마다 피가 스며 나온다.
계속해서 욕지거리를 뱉으며 가방에 힘껏 발길질을 해댄다.
격한 동작으로 인해 호흡이 거칠어진 동규가 **후!**하고 숨을 뱉는다.
개운한 표정의 동규가 가방 지퍼를 열자 안에는 형두의 운전수가 들어가 있다.
동규가 **이건 뭐여 씨벌!**하고 놀라는데,
어느새 다가온 최영이 동규의 머리에 6발 짜리 리볼버 권총을 겨눈다.
동규가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리고 두 손을 항복 자세로 든다.
놀란 눈을 똥그랗게 뜨고 최영을 쳐다보는 동규.

동규
이런 미친! 이게 뭔 상황이다냐?

밖에 있던 형두가 느긋한 걸음걸이로 창고로 들어와 최영의 총을 넘겨 받는다.

형두
(총구로 동규의 관자놀이를 누르며) 뭐겠냐? 뭐겠어. 동규야. 이 새끼야.
(비웃으며) 이런 총도 하나 없으면서 뭔 건달 두목을 하겠다고.

동규
(비굴하게) 어이고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까~

형두
회장님은~ 시발! 이 개새끼는 아주 앞에서만 꼬리를 살랑대지.
뒤에서 하고 다니는 짓거리 보면 아주~
어이! 송최영이 된장 좀 갖고 와라.
이 개새끼 이거 확 발라 버리게.

동규
아이구.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살벌하게 하십니까~

형두
내가 송최영이한테 다~ 들었어.
니놈 새끼가 뒷구녕으로 무슨 개수작을 부렸는지.
니가 그러면 내 자리를 뺏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냐?

동규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감히...
근데 다 들으셨다니...그럼 아!
영아, 그럼...너...그...저...뭐냐! 며칠 전에 식당 건!
그거,그거 회장님이 지시하신 건 몰랐지?
그 소스랑 총알 주인이 다 우리 강형두 회장님이시다 이말이지.

형두
그게 지금 뭔 상관이야?
동규
저 딸내미가 그 식당 사장년 딸인디.
아빠가 여기 이 송최영이라는구만요.

형두
뭐? 아~이런! 시발. 일이 참 좆 같이 꼬였네 그거.
(최영을 향해 돌아보며) 이거 봐. 송최영이! 그게 말이야...!

형두가 돌아보는 순간 총을 든 손을 위로 들어올리며 형두의 목을 그어버리는 최영.
놀란 형두가 방아쇠를 당기자 탕!하는 총성과 함께 총알이 천장을 뚫는다.
놀란 동규가 기어가다시피 하며 부하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형두의 총을 뺏은 최영이 탕!탕!탕! 총을 쏜다.
동규의 옆으로 총알이 핑!핑!핑! 스쳐가며 바닥의 흙들이 튀어오른다.
동규가 **으아아!** 기겁을 하며 채연 뒤에 숨는다.

동규
(채연 뒤에서 고개만 내밀며) 이 개새끼야!
니 딸년이 맞기라도 하면 어쩔라고 그렇게 막 쏴대! 이 미친새끼야!

최영이 총구를 동규 쪽으로 향하자. 다시 채연 뒤에 바짝 숨는다.

동규
어디 한번 쏴봐! 이 개새끼야.
그 거리에서 맞출 자신은 있고?

최영이 한발짝 두발짝 동규를 향해 걸음을 옮긴다.

동규
씨벌! 다가오지마!

(부하에게) 야 저 새끼 저거 한발짝만 더 떼면 이 년 목 확! 그어버려.
알았지? 야 송최영, 너 총 내려놔.
바닥에 내려놔! 새끼야 빨리!
(최영이 망설이자 칼을 든 부하의 손을 움켜쥐며) 확! 그어? 어?

부하가 칼로 채연의 목을 지그시 누르자.
채연이 바들바들 떨며 울음을 터트린다.
최영이 손을 들어올리며 항복의사를 표시하고 천천히 총을 내려놓는다.

동규
(채연의 뒤에서 나오며) 물러서 이 새끼야 빨리.
훠이~ 빽! 빽! 시발! 빽!

최영이 뒤로 물러서자 동규가 재빠르게 총을 집어 최영을 겨눈다.
잠시 최영을 겨누다가 쓰러져 있는 형두의 머리에 총을 탕! 쏜다.
형두의 뺨에 총알 자국이 생긴다.
형두의 목에서 나온 피로 인해 물든 흙들에 더해서
머리에서 나온 피로 인해 또 다른 모양으로 바닥을 적신다.
이번엔 최영을 향해 탕! 쏜다.
최영의 왼쪽 어깨죽지에 구멍이 나면서 휘청한다.
최영이 **윽~!**하는 신음을 내뱉으며 어깨를 부여잡고 무릎을 꿇는다.
동규가 몇 번 더 방아쇠를 당겨보지만 틱!틱!하고 빈 총 소리만 난다.
아이 씨발!하며 총을 던져버리는 동규.
무릎 꿇은 최영의 뺨을 힘껏 때린다.
최영의 고개가 돌아간다.
동규의 손이 점점 더 빨라지며 최영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한다.
쓰러진 최영을 걷어차는 동규.

동규
(발로 차며) 내가! 씨발! 너를! 얼마나! 가~족! 같이! 대했는데!
(잠깐 쉬며 호흡) 후~! (다시 시작) 집도 주고! 먹여도 주고! (끝)
그 짓거리를 10년도 넘게 했어. 이 새끼야.
(배에 난 상처를 들추며) 이거 때매 10년을 넘도록!
이 개새끼야! 이 정도 했으면 나도 가족 아니냐?!

씩!씩! 거친 호흡을 진정시킨 동규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 최영에게 다가선다.
칼을 까딱까딱 흔들며 잠시 고민하더니 돌아서서 부하 쪽으로 간다.

동규
마무리해.

부하
(놀람) 네?

동규
죽이고 정리하라고 새끼야!

말을 마친 동규가 채연을 끌고 창고 뒷문으로 나간다.
쓰러진 최영이 동규의 뒤에 대고 입을 뻥끗거린다.
칼을 든 부하가 최영에게 다가오자 최영이 천정을 보고 눕는다.
부하가 비장한 표정으로 칼을 거꾸로 잡고 최영의 목을 향해 칼을 내리 꽂는다.
순간 최영이 왼손을 들어 칼을 막는다.
칼날이 최영의 왼손을 꿰뚫는다.
악!하는 비명을 지른 최영이 꿰뚫린 왼손으로 칼을 쥔 부하의 손을 꽉 움켜 쥔다.
부하가 용을 쓰지만 칼을 더 밀어넣지도 뽑아내지도 못한다.
그 틈을 타 오른손을 뻗어 부하의 중요부위를 잡아터트리는 최영.
부하가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며 비명도 못지르고 기절해버린다.
최영이 기절한 부하의 위에 올라타 왼손을 꿰뚫은 칼날로 부하의 가슴을 찌른다.
부하의 입에서 피거품이 일어난다.
최영이 이를 악물고 자신의 손을 꿰뚫은 칼을 뽑아낸다.

#67. 창고 뒤쪽. 새벽.

어느 새 어스름레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
창고 뒤쪽 공터에 동규의 세단이 주차되어 있다.
공터 뒤로는 가파른 벼랑이다.
차 뒷좌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동규.
옆에 앉아 있던 채연이 창고 뒷문으로 나오는 최영을 발견한다.
아저씨!하며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채연.
동규가 **이런 씨발!**하면서 따라내려 채연의 머리채를 낚아챈다.
최영이 좀비같은 몰골로 두사람을 향해 걸어간다.
동규가 채연의 목에 칼을 대고 슬금슬금 물러난다.

동규
오지마! 오지마! 이 미친 새끼야! 그만하라고 좀!
이러면 내가 너무 개새끼 같잖아!

최영
(쉰 목소리) 보내줘...애는...보내주라고...

채연
(울부짖는) 아저씨! 아저씨!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다 보니 어느새 벼랑에 몰린 동규.

동규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고) 아이 씨벌! 오지말라니까!
(최영을 노려보며) 난 몰러. 이 년은 너 때매 뒤지는거여.

동규가 채연을 벼랑으로 밀어버린 후 차를 향해 도망친다.
채연이 **꺄악!**하고 미끄러지더니 아래로 사라진다.
최영이 **안돼!**하며 벼랑쪽으로 뛰어간다.
최영이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면 벼랑 가운데 매달려 있는 채연.
채연이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저씨...**하고 부른다.
동규는 운전석에 앉았다가 차키가 없음을 깨닫는다.
이런 씨벌!하고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동규.
최영이 조심스럽게 벼랑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최영
채연아! 기다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채연
(울먹이며) 아저씨! 아저씨!
(아래를 힐끔 보고 울음이 터진) 으아아!! 아저씨~!

최영
야! 밑에 보지마. 밑에는 보는거 아냐.
너, 클리프 행어 안봤어?

채연
그딴거 몰라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

최영
소리지르지마! 힘만 빠져. 손끝이랑 발끝에만 집중해.
아빠...아니 아저씨 다 왔으니까. 쫌만 참어.

최영이 채연의 근처까지 내려왔으나 더 가까워지기가 마땅치 않다.
바들바들 떨리는 채연의 두 팔.
채연이 **꺄악!**하며 오른손이 미끄러지고 왼손마저 벽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최영이 오른손을 최대한 길게 뻗어 채연의 왼손목을 잡는다.
윽!하며 신음을 하는 최영.
왼손과 어깨에서 피가 나와서 최영의 몸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다.

최영
(이를 악물고) 잡았어...내가 잡았어.
밑에 보지마! 내가 잡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의 말과 달리 최영의 왼손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하고 흐르는 피가 오른손까지 적시면서 채연의 손이 점점 빠져나간다.
공중에 매달린 채 아래를 내려다 본 채연이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최영을 바라본다.

채연
아저씨, 올드보이 봤어요?

최영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젓는)...

채연
엄마 몰래 그 영화 봤는데, 거기서 지금이랑 비슷한 장면 본 거 같아요...
시발. 그래도 아저씨랑 나랑은 안했으니까...
그때 코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해줘서...진짜 다행이다. 그쵸?
안 그랬으면 진짜 좆 같았을꺼야. 지금 이 상황.

최영
(울먹이며) 씨발...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입 좀 다물고.

손 더 꽉 잡아. 우리 살 수 있어!

채연
(미소) 괜찮아요. 모르고 그런거니까.
이제 됐어요. 어차피 엄마도 없고...
평생 개새끼라고 원망했던 아빠도 누군지 알았으니까...
아~씨! 나 존나 쿨하네!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빠.

채연의 손이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진다.
으악!! 비명을 지르는 최영이 차마 아래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다.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를 벼랑에 쾅쾅 박아대는 최영.

#68. 동규의 세단 안. 새벽.

동규가 차를 몰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입에 문 담배가 파르르 떨리고 있고 연신 시발시발하며 중얼거리고 있다.

동규
(중얼거림) 개새끼가,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디.
안지 며칠 되지도 않은 딸년 때매 감히 나한테 말이여. 씨벌!
형두파 새끼들도 정리해야 되는디...한명이 아쉬운 판에...
강형두 이 씹새끼! 아무튼 그 개새끼가 젤 문제여...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배가 쑤시는구만, 잘 뒤졌어! 이 씨벌새끼.
그래 잘 뒤졌지! 아주 잘 뒤졌어...

#69. 어느 건물의 옥상. 밤.

13년 전 회상.

비가 쏟아지는 날씨의 상가 건물 옥상.
형두가 자신의 부하 여럿과 함께 황회장을 감싸는 동규와 대치하고 있다. 황회장은 피가 새어나오는 목을 손으로 잡고 동규의 뒤에 숨어있고 동규는 칼을 내밀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다가오려는 형두 일행을 위협하고 있다.

동규
절루가! 이 씨벌 것들아! 배신자 새끼들아!

내가 니들 배때지를 싹 다 찢어놓을라니께!

형두
(부하들과 비웃으며) 어우~씨! 동규야, 겁난다야!
(부하들에게)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서지들 마라.

형두가 손을 내밀자 부하가 말아 놓았던 천을 곱게 펴고 안에 있던 회칼을 건낸다.
칼을 잡고 달랑달랑 흔들며 동규에게 걸어가는 형두.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본격적으로 싸우려는 자세를 취한다.
동규가 휘두르는 것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칼이 서로를 노리고 날아든다.
동규가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형두의 안면에 펀치를 먹인다.
형두가 코피를 뿜으며 몇 걸음 물러선다.
코피가 나는 걸 확인하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코를 흥! 푸는 형두.
형두가 가볍게 스텝을 밟기 시작한다.
동규가 휘두르는 칼을 이소룡처럼 위빙으로 피하는 형두.
발차기를 날려 동규의 관자놀이를 때린다.
정신이 혼미해진 동규가 재빨리 거리를 벌린다.
개새끼야!하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동규에게 다시 발차기를 날리려는 형두.
동규가 머리를 막으려는데, 발차기는 훼이크였고, 칼로 동규의 배를 그어버린다.
악!하며 배를 부여잡고 무릎을 꿇는 동규.
동규의 손가락 사이에서 피가 흘러넘친다.
형두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동규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잡는다.
자신을 노려보는 동규의 목을 찌르려는 순간,
턱!소리와 함께 옥상 난간을 붙잡는 최영의 손.
모두의 시선이 최영의 손을 향한다.
날듯이 난간을 뛰어 넘어와 형두를 날라차기로 날려버리는 최영.
형두가 정통으로 맞고 뒤로 나동그라 진다.
일행들이 **형님!**하며 형두를 부축하여 일으키고,
최영이 동규와 황회장을 보호하듯 막아선다.

최영
(동규에게) 형님! 괜찮아요?
(뒤춤에서 칼을 뽑으며) 이 씨발놈들아! 다 덤벼!

형두
(옷을 툭툭 털며) 아~이런 씨발! 스타일 구겨지게.
송최영이 이 비겁한 새끼야. 기습을 하냐?

최영
뒤통수는 누가 먼저 쳤는데!
강형두 이 배신자 새끼야!

형두
장동규, 송최영이! 이 좆 만한 꼴통새끼들아.
대통 형님도 내 뺀 마당에,
너네 둘이서 뭐 어쩌려고 이렇게 개기냐? 어!?

최영
너 하나 죽이면, 우리 둘 목숨값은 그걸로 퉁이다. 이 씨발놈아!

형두
하! 저 개새끼 진짜. 한참 형한테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형두 옆에 있던 부하가 **형님!**하고 형두에게 귓속말을 한다.
형두가 끄덕이더니 칼을 내밀자 칼을 건냈던 부하가 받아 다시 천으로 곱게 싼다.

형두
(정중하게) 큰형님,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형두가 90도로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자 그의 일행들이 모두 인사를 한다.
고개를 들고 돌아서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형두와 일행들.
모두 사라지자 그제서야 최영이 동규를 살핀다.

최영
형님, 괜찮아요?

동규
(죽어가는 목소리) 나,난...괜찮아...회장님, 회장님은?

두 사람이 돌아보면 황회장이 바닥에 누워 죽어있다.
빗물과 황회장의 피가 섞여 배수구로 빠지고 있다.
비가 서서히 그치면서 도시의 불빛이 선명해진다.

#70. 동규의 세단 안. 새벽.

다시 현재.
동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
동규가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닦고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살피는데
뒤에서 맹렬하게 쫓아오는 형두의 세단이 보인다.

동규
(놀라며) 저건 또 뭐여, 씨벌!

어느 새 동규의 옆으로 온 형두의 세단이 옆구리를 힘껏 부딪쳐 온다.
동규가 차와 함께 휘청한다.

동규
(절규) 송최영! 이 미친 새끼야!!

#71. 고속도로. 새벽.

띄엄띄엄 대형 화물 트럭들이 달리고 있는 한산한 고속도로 위.
레이싱하듯 횡종무진하며 과속으로 달리는 세단 두 대.

#72. 형두의 세단 안. 새벽.

광기어린 표정으로 동규의 세단 뒤를 쫓고 있는 최영.
엔진의 굉음이 차 안을 울린다. 그때 울리는 전화.

#73. 동규의 세단 안. 새벽.

핸드폰을 손에 쥐고 긴장한 채 운전을 하고 있는 동규.
엔진의 굉음이 만만치 않다. 전화기를 들고 흘끔흘끔 보던 동규.
씨벌!하며 전화기를 던져버린다.

#74. 고속도로. 새벽.

아슬아슬하게 앞서 달리던 동규의 세단이 핸들을 꺾어 휴게소로 들어가 버린다.
입구를 지나친 형두의 세단.
휴게소의 출구 앞에서 미끄러지듯 차를 돌려 역주행으로 휴게소에 들어간다.

#75. 형두의 세단 안. 새벽.

역주행으로 들어와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최영.
눈 앞에는 차에서 내려 최영을 기다리고 서 있는 동규가 보인다.
최영이 동규 근처에 아무렇게나 차를 세우고 내린다.

#76.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새벽.

이제 막 시작된 일출이 주차장을 노랗게 물들인다.
최영이 차에서 내려 뚜벅뚜벅 동규에게 걸어간다.
동규가 허리에 손을 얹고 걸어오는 최영을 노려본다.

> **동규**
> (질림) 이 씨벌놈아! 그만허라고! 꼭 끝을 봐야겄냐?
> 그냥 각자 살 길 찾아가자고!

최영이 동규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다가간다.

> **동규**
> 오지마라! 경고했다! 송최영!
> 형으로서 하는 마지막 명령이여.
> 아니, 부탁이여. 오지마, 제발 오지마!

최영이 계속해서 다가오자 동규가 뒤춤에서 칼을 뽑는다.
두 사람의 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진 순간 칼이 들어가는 소리와
동시에 뼈가 우둑!하는 소리가 난다.
동규의 시야에서 최영이 사라졌다.
보이지는 않고 들리기만 하는 멀어지는 최영의 발소리.
카메라가 두 사람을 비추면 동규의 목이 180도 돌아가 있다.
앞으로 꼬꾸라지는 몸과 달리 동규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다.

#77. 형두의 세단 안. 아침.

최영이 털썩 운전석에 앉는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최영의 배에 동규의 칼이 꽂혀있다.
잊고 있던 고통이 밀려오는 듯 **허헉!**하고 호흡을 들이마시며 흐느끼기 시작하는 최영.

최영의 흐느낌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된다.

#78. 검시실. 낮.

삭막한 느낌의 검시실.
하얀 천으로 덮힌 시신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가운을 입은 검시관과 환자복을 입은 초췌한 현수가 불편한 걸음으로 들어온다.

검시관
(머뭇거리며) 어...사망자분이 머리부터 떨어지시면서,
안면 손상이 많이 되어 그 부분만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실 겁니다.
다른 신체적 특징들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힘 없는 목소리) ...네

검시관이 흰 천을 걷으면 엄지에 스마일로 네일아트를 한 채연의 손이 비춰진다.

#79. 형두와 동규의 장례식장. 낮.

큰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 건물 로비.
50명 남짓한 건달 패거리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일반인 조문객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간다.
싸우는 무리들 너머로 보이는 안내용 벽걸이TV에는 형두와 동규의 장례식장이
서로 이웃하여 마련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다. ex) 강형두 특실1, 장동규 특실2

#80. 암벽. 새벽.

타이틀 시퀀스에서 최영의 나래이션이 끝난 지점부터 다시 반복된다.
최영이 암벽을 올라가다가 암벽이 부서지면서 한손으로 매달린 상태가 된다.
최영의 힘주는 신음소리가 이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최영.
다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면 파란 하늘이 보이고 최영의 나래이션이 흘러나온다.

최영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남고자 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

바들바들 떨며 암벽을 붙잡고 있는 최영의 손 클로즈 업.
손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는 순간, 화면 암전.

THE END.